



비전
성남

그날의
설렘으로

호국보훈의 달 6월,
2020년에는 호국과 보훈이 유달리
와닿습니다. 의료진뿐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바이러스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사진은, 그때는 당연하게 즐겼던,
일상이 푸르르던 1년 전 '파크콘서트'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덕분에' 그날의
설렘을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사진 : 남기석

JUNE 06
Vol.299

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 통권 제299호 2020년 5월 27일 발행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Play 스토어'에서
'비전성남'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면
모바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 공식 SNS

- 페이스북 facebook.com/seongnamdiary
- 블로그 seongnamdiary.com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ngnamsi
- 트위터 twitter.com/seongnamcity
- 유튜브 youtube.com/user/sndiary

발행 성남시
편집 공보관
주소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콜센터 성남시콜센터 1577·3100
홈페이지 snvision.seongnam.go.kr



새로운 일상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개인과 집단 방역 5대 핵심 수칙, 31개 세부지침 발표

취재 전우선 기자 folojs@hanmail.net

5월 6일 0시.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다.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로 신규 확진 환자 수가 줄고, 집단 발생 건수,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안정화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가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휴교, 재택근무, 온라인 예배 등 사람 간의 물리적 접촉을 줄여 바이러스 전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예방법이라면, 생활 속 거리두기는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함께 이뤄지도록 생활 습관과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캠페인이다.

새로운 일상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활공간 침입 차단, 생존 환경 제거, 몸 밖 배출 최소화, 전파경로 차단을 위한 수칙을 실천해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반드시 ▲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한다.

손 씻기와 사람 간 거리 두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다. 사람 간에 2m 이상, 최소 1m 이상 거리를 뒀다 침방울로 인한 감염을 줄인다.

환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낮출 수 있다.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항상 열어 두고, 그렇지 못한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환기 시에는 문과 창문을 함께 열어 놓고, 미세먼지가 있어도 실내

‘생활 속 거리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를 말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행동요령 Check!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개인방역 -

기본수칙

- 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2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3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 4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보조수칙

- 1 마스크 착용
- 2 환경 소독
- 3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 4 건강한 생활습관

2020.5.6. 기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행동요령 Check!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집단방역 -

기본수칙

- 1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 2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3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4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 5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보조수칙

[원칙]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
[구성] 총 12개 부처, 31개 세부지침
-사업장, 대중교통, 음식점, 백화점 등

2020.5.6. 기준

환기가 필요하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가능한 한 좌석씩 띄어 앉으며, 마주 보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자리가 붙어 있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감염병이 유행해도 신체활동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고,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해야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울 수 있다.

직장, 학교, 사업장 등 개인과 공동체가 같이 지켜야 하는 집단방역은 반드시 ▲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방역관리자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하기 ▲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고 전파 속도가 빨라 쉽게 집단 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 집단감염 발생 예방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력이 중요하다. 공동체의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밀폐된 환경인 경우 자주 손 씻기, 1~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또는 안면보호대 설치, 유증상자 확인, 자주 환기 등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 정부는 집단방역 수칙에 ▲ 업무 4분야 ▲ 일상 9분야 ▲ 여가 18분야 등 총 12개 부처, 31개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및 집단 방역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ncov.moh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자마자 서울의 한 클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초·중·고교의 등교가 또 한 차례 연기됐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이제 더 이상 개인과 공동체의 일상을 미룰 수 없다. 적극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나와 모두를 위한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성남시, 공공·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방역 강화 총력

공공도서관·체육시설 등 총 1,577개소, 6월 14일까지 운영 중단

성남시는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추세에 따라 모든 공공·다중이용시설 총 1,577개소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고 5월 29일 밝혔다.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 판교박물관, 실내외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5월 29일 오후 6시부터 6월 14일 자정까지 총 17일간 운영이 중단된다.

이는 시가 5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한 정부의 방역 관리 지침에 따라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이던 공공·작은도서관 137곳, 실외체육시설 32곳, 시립식물원 1곳, 반려견·어린이놀이터 45곳 등도 6월 14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6월 1일로 예정됐던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도 잠정 연기기로 했다.

다만 공공도서관은 5월 30일부터 '사전예약 드라이브·워크스루 도서대출 서비스' 운영을 재개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를 통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과 PC방에 대해서도 집합제한 명

령을 내리고,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앞서 유흥주점 308곳, 단란주점 186곳, 클럽 및 콜라텍 16곳, 코인노래연습장 50곳에 대해 6월 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성남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성남시장은 "수도권 지역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향후 1~2주가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중요한 고비임을 인식,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재난안전관 사회재난팀 031-729-3542



성남연대 희망캠페인 3억3,850만 원 '코로나19' 취약계층 1차 지원

성남시는 3개 기관·단체와 손잡고 '성남연대 희망캠페인(4. 1~9. 30)'을 벌이는 가운데 최근 한 달간 걷힌 모금액 3억3,850만 원으로 8개 사업의 코로나19 취약계층을 1차 지원했다고 5월 19일 밝혔다.

세부 지원 내용은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98곳 위로금 9,800만 원 ▲ 모란5일장 상인 554명 희망자금 1억1,080만 원 ▲ 성호·중앙시장 무점포 상인 250명 희망자금 5천만 원 ▲ 외국인 취약계층 170명 생활안정지원금 1,700만 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18세) 416명 돌봄비 4,160만 원 ▲ 발달장애인 예술단체 1곳 임차료 330만



개인뿐 아니라 각급 단체들도 연이어 성남연대 희망캠페인 모금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은 성남시 공무원노조의 기부금 전달식 장면.

원 ▲ 학교급식 친환경농가 운영자 5명 손해위로금 250만 원 ▲ 외국인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17곳 운영비 1,530만 원 등이다.

이번 지급액은 코로나19 극복 성금 모금 활동을 진행하는 (사)월드휴먼브리지가 이들 8개 사업에 관한 배분심사를 진행해 결정했다.

성남연대 희망캠페인 모금 활동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성남시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발굴, 성남시의회와 성남상공회의소는 홍보를 각각 맡고 있다.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생기면 (사)월드휴먼브리지가 배분심사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지급한다.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031-729-2842

고용사각지대 근로자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

성남시 특수고용직·프리랜서·무급휴직종사자 대상, 2개월간 최대 100만 원

성남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성남형 연대안 전기금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사각지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을 펴고 있다.

지난 4월 20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이어 5월 1일부터 접수창구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했다.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심각단계(2. 23)로 격상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50인 미만 휴업사업장의 무급휴직종사자다. 이들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을 현금으로 계좌입금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긴급 생계비,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중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자는 근로계약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간단한 자격확인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6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5월 24일 기준 4,998건(45.4%)이 접수됐다.

고용노동과 일자리기획팀 031-729-2851

재난지원금 10%, 더 어려운 이웃에 기부해 주세요!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재난지원금 기부·나눔 캠페인 '슬기로운 기부생활'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공동위원장 직무대행 남천우)와 성남이로운재단(이사장 장건)이 함께하는 모금사업으로 성남시민, 단체, 기업이 중앙정부, 경기도, 성남시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10% 이상을 기부해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공동모금 캠페인입니다.



- 캠페인 기간 2020. 5. 1~7. 31
- 캠페인 참여 이웃을 살피는 슬기로운 성남시민 누구나
- 기부방법 지급받은 재난지원금 10% 이상 기부
 - ※ 기부신청 : 약정 → 기부 → 기부금영수증 받기
 - 약정방법 ① QR코드(오른쪽) 스캔 → 작성·제출
 - 약정방법 ② bitly.kr/KEr1W7i22 접속 → 작성·제출
 - 약정방법 ③ 유선연락 031-759-2004
 - 약정방법 ④ 협의체(www.snwelfare.net), 재단(www.goodfund.or.kr)
- 기타문의 031-759-2004/ 031-721-0822

모든 가구 대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5월 18일~8월 18일 카드사별 은행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병행

성남시는 5월 11일부터 온라인, 18일부터는 방문 신청을 통해 지역 내 40만 모든 가구(94만1,688명)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 37만 4천 원, 2인 가구 56만1천 원, 3인 가구 74만8천 원, 4인 이상 가구 93만5천 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4인 가구 이상 지원금 100만 원 중 87만 1천 원은 국비, 나머지가 지방비(광역·기초지자체)다. 이중 성남시는 기초지자체 몫인 6만4천 원을 100% 부담했다.

경기도 내 31곳 시·군 중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지자체 몫을 모두 반영한 곳은 성남시를 포함해 6곳뿐이다. 5월 11일부터 세대주가 지닌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고 있으며 5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카드사별 은행이나 성남시 50개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도 한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지자체로 환수된다. 5월 24일 24시 기준 성남의 35만8587가구(87.7%)가 신청했다.

성남시는 5월 4일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3만3,196가구에 141억4,542만 원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했다.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729-2797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받았어요 (100만 원)

김성중 성남시개인택시조합장(63·분당구 구미동)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택시 승객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하지만 택시라는 것이 손님이 없다고 운영을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동차 수리비나 연료비, 보험료 등은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하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현금 지원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원금으로 차를 수리하거나 보험료를 냈다며 택시 기사님들의 고맙다는 인사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에서 주는 혜택인데 저에게 인사하는 기사님들의 마음을 대신해 성남시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객이 마음 놓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사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차량을 환기·소독하는 등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윤덕 미용업 운영(60·분당구 정자동)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 중에 소상공인을 지원해준 성남시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8년여 동안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적은 처음입니다. 문을 닫고 쉬어야 하나, 그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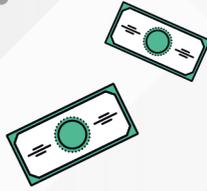
문을 열고 운영해야 하나 고민이었어요.

그러나 꼭 필요해서 찾아오는 고객을 헛걸음하게 할 수 없어서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고통 분담하자며 시간을 줄여 운영했어요.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손 세정제를 준비하고 마스크 쓰기를 권했어요.

소상공인 지원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고, 모두의 세금이라는 것을 알기에 소중하고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조금만 더 힘내세요.



카페지음 '바리스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고마워요 성남!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수혜자 인터뷰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5월부터 소진 시까지)

강현옥 자원봉사자(63·중원구 하대원동)



코로나19로 지역의 농민, 자영업을 하는 상인들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는 알리를 보고, 또 지인의 SNS를 보고, 30만 원 상품권을 27만 원에 구매했어요. 5월 20일 오후 2시 화훼·채소 농가를 위해 열린 시청 드라이브 스투 행사에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샤피니아를 사다가 2층 계단을 장식해 골목 안을 환하게 밝혀봅니다. 오고 가는 동네 분들 마음도 밝아지기를 기원하면서.

하대원동 시장, 마트 등 중소 매장과 골목의 작은 가게에서 그간 넉넉히 구매하지 못했던 물품을 구매해 냉장고 채소통을 채워놨어요. 이사한 딸과 어린이날 득녀한 아들 집을 방문할 계획인데 넉넉한 마음으로 예쁘고 곱게 싼 월남쌈을 준비하고 맛있는 소고기미역국을 끓일 거예요. 또 처음 받아보는 성남시 재난연대안전자금으로 식자재를 사며 위로를 받으면서도 한편 마음이 짠했어요. 얼른 코로나19가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일찍부터 한 달 상품권 구매해도 50만 원어치를 4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요즘은 가맹점도 많아져서 동네 마트며 세탁소 등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구 회사원(45·수정구 신흥동)



회사동료 소개로 지역상품권 할인을 알게 돼 6% 할인할 때도 구매해서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사용 장소도 많이 확대되고 10%까지 할인해 주니 돈을 번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50만 원어치 구매했어요.

이 상품권으로 어버이날 오리고깃집에서 처가식구들에게 식사대접을 했습니다. 치과에서 치료도 받았어요. 약국에서 코세척통이랑 가루식염수도 구매했어요.

그동안 인터넷(전자상거래)구매만 하다가 전통시장을 찾게 됩니다. 할인에 추가 할인을 받은 것 같고 꿀잼이에요. 특히 10% 특별할인 기간에는 놓치지 않고 구매할 겁니다.

심희주 바리스타(49·분당구 분당동)



평소에도 6%의 할인혜택이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을 지류나 모바일로 잘 이용하고 있는데, 10% 할인 판매는 저에게 더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한 달 상품권 구매해도 50만 원어치를 4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요즘은 가맹점도 많아져서 동네 마트며 세탁소 등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지불하기 부담스럽던 금액의 단골 미용실 정액이용권도 구입했습니다. 정액이용권 자체가 10% 정도 할인됐고 상품권도 10% 할인 받아 샀으니 총 20%를 절약한 셈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소비방법을 어머니와 성인이 된 딸에게도 전수해줬습니다. 지인들에게도 성남사랑상품권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성남형 연대안전자금 정책을 펴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고용사각지대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무급휴직자 대상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과 함께 성남사랑상품권도 한시적으로 기존 6%에서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혜택을 받은 시민들을 만났다.

취재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나안근 기자 95nak@hanmail.net, 김미진 기자 qeen03@hanmail.net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최대 2개월간 100만 원)

김유하 피아노학원 강사(25·수정구 신흥동)



전임으로 피아노학원에서 근무했지만 2월 20일경부터는 쉬다가 최근 주 1회 나가고 있어요. 그러던 중 지인의 조언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했어요. 신청은 생각보다 어려워 전화로 문의해서 해결했는데 통화하기 쉽지 않았답니다. 저처럼 문의하는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재난연대안전자금은 효도 차원에서 부모님께 사용했어요. 이번에 받은 긴급고용지원금은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카드값에 사용할 겁니다. 덕분에 힘든 고비를 넘겼습니다.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소외된 사람들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성남의 복지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용 성악가(38·분당구 정자동)



지난 2월부터 구두계약을 하고 정식 계약하기 전에 공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연습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공연 취소 문자를 줄줄이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다면 2월부터 5월까지 예정됐던 수십여 건의 공연 무대에 섰을 텐데, 단 한 건의 공연도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매체 송출 방식으로 조금씩 활동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 긴급고용지원금 수혜를 받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우울한 시기를 이겨내는 데 힘이 됩니다.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해서 하반기에는 예정된 국립오페라단 앙상블과 오페라 마술피리 등의 공연을 무대에서 꼭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현화 헤어디자이너(27·중원구 성남동)



코로나19로 거의 한 달가량 일을 쉬었어요. 간간히 나가다가 최근에서야 일을 좀 한 것 같아요. 저는 1인 가구라 공과금, 생활비, 카드값 등이 현실적인 고민들이죠.

그때 SNS 홍보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원금을 신청했어요. 제가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현금으로 받으니 밀린 공과금과 카드값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재난연대안전자금은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고요.

프리랜서로서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이런 시기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 시에서 지원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어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임인혁 교육 강사(50·중원구 상대원3동)



2016년부터 기획재정부 경제 강사, 법무부 어린이 로스쿨 강사로 5년째 활동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과 자유학기제 청소년들에게 신나게 수업하고 늘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수업시간보

다 먼저 공부하고 토론하고 실연하는 등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 강사라는 직업군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수업이 줄어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비단 저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시기에 성남시의 프리랜서 강사들을 위한 긴급고용지원금은 가뭄의 단비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돼요.

신청자격이 완화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저 역시도 아직은 신청만 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수혜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강사들이 많이 지원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남시 재난연대안전자금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20만 원)

윤정 화가(51·분당구 삼평동)



처음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말 막막했어요. 당장 일을 나가는 센터에서는 휴강 안내가 오고, 운영하던 화실도 휴강을 면치 못하게 됐어요. 처음 있는 일이라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됐어요. 동네의 작은 꽃집에서 꽃을 사며 서로 위로를 했어요. 식당과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평소라면 종일 일을 했을 그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우울했던 시간들, 함께 쓸 수 있는 재난지원금과 여유 있는 시간으로 요즘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어요. 성남시민 여러분, 힘내세요!

김은화 교육전문가(35·분당구 백현동)



최근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했어요. 올해 2월 초 소중한 새 생명을 만났어요. 하지만 새 생명의 기쁨과 동시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걱정을 하게 됐어요.

첫째는 신생아 엄마로서 아기 건강문제, 둘째는 교육사업체 대표로서 경제적 위기였어요. 코로나19로 주요 고객사가 도산 직전의 위기 상황이 됐고, 거래업체들이 경제적 정지상태가 되니 제가 운영하는 업체도 영향을 받았어요.

성남시민이자 경기도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근 4월과 5월, 성남시 재난연대안전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엄마이자 주부로서 지원금 카드로 동네 상권의 채소·과일가게, 정육점, 커피숍, 빵집, 미용실, 식당 등에서 생활용품을 사거나 아기를 위한 육아용품도 구매했어요.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금 정책이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가계경제에도 도움이 됐고, 어려운 시기에 빨리 추진돼 국민에게 희망을 줘서 기쁩니다.



강현옥(하대원동) 씨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한 화분들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뛰는 성남시의료원

정상진료 본격화,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

취재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어려움을 이겨낸 성남시의료원은 더 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 시의료원은 2019년 11월 모의진료, 12월 시범진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2020년 3월 17일 정식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이후 전 의료진이 하나가 돼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고, 시의료원을 포함한 많은 의료진들이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한 결과 이제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

는 시점에 접어들었다. 5월 이태원 클럽발 지역감염 확산과 관련, 의료원 전 직원 대상 코로나19 전수조사 결과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아 내부감염 우려도 말끔히 해소했다. 5월 20일 기준 시의료원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총 174명, 퇴원환자는 147명, 검체검사자는 1,945명이다.

시민 발의로 시작된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인근 타 지역민들에게도 기여한 공이 크다. 이제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정상진료에 매진하는 시의료원은 원도심 주민들의 의료격차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의료원은 5월 6일부터 정상개원을 했으며 5월 20일 기준 전문의 68명, 간호사 221명, 응역 및 파견 직원 포함 총 685명이 근무 중이다. 8분과 포함 22개 진료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등급 1등급으로 전문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고의 장점은 전체 의료진이 전문의로 구성된 것, 대학병원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 CT·MRI·Angio 등 최고 사양의 주요 장비들이 있다는 것이다.

수술·입원·응급 등 주요시설



수술실

8개 수술방이 있으며 안전하고 청결한 구조로 설계됐다. 수술공간과 직원공간이 철저히 분리된 동선 구조로 설계됐으며 수술방 중 2개는 100class, 6개는 10,000class 수준의 청정도와 넓은 공간을 갖춤으로써 대학병원 수준의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다. 수술을 마친 환자들은 별도의 통로를 통해 중환자실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첨단 시스템이 구축됐다. 대표적으로 라이브 수술(Live Surgery)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 의료진 협진이 가능하다. 효율적 운영 시스템도 갖췄다. 의사 및 수술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술기구 세트를 보관하는 케이스 카트 공급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원웨이 시스템을 구축해 수술실 내에서 사용한 기구들은 세척-포장-멸균-보관으로 바로 이어진다.



중환자실

크게 내과계와 외과계 중환자실로 나뉘어져 있다. 내과계 17병상(음압격리실 3병상), 외과계 18병상(격리실 2병상) 총 35 병상으로 2019년 완공된 신축병원으로 지방 의료원 중 최첨단 시설이 마련돼 있다.

중환자실에서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펜던트, Wall care unit 설치)과 최신 의료장비(인공 호흡기, 심폐보조장치, 지속적 신대체 요법)를 갖추고 있다.

또한 고위험 의료장비와 EMR(전자 의무 기록)이 상호 연동돼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중환자 전담의 및 중환자 전문간호사, 영양집중지원팀(NST)과 다학제적인 진료 시스템도 구축돼 있다.



입원병실

전체 병실은 4·2·1인실로 쾌적하고 입원환자가 답답하지 않게 창문을 대형 유리로 시공해 시야가 시원하다. 병실마다 전자동 침대가 갖춰져 손동작이 가능한 환자라면 본인이 버튼을 이용해 침대의 높낮이와 등판, 다리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

환자의 머리맡에는 메인 스테이션의 간호사와 연결되는 비상벨인 Nurse Call이 있고 불편 시간호사와 통화가능하다.

트레이 내부에 운송물품을 적재해 운송하는 시스템인 버티컬 컨베이어와 기승관은 인력관리 효율성과 물품 전달력이 뛰어난 내부시스템이다.

9층 격리병동은 크린룸 자동제어시스템이 설치돼 격리실은 물론 복도, 탈의실, 샤워실까지 온·습도, 압력, 풍량까지 자동 제어된다.



응급의료센터

시의료원이 최종적으로 구상하는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0명, 응급구조사 10명, 간호인력 34명, NEDIS 전담 2명, 응급의학과 전담간호사 6명 체제다. 응급의료센터는 29병상으로 공간이 매우 효율적으로 배치돼 있다. 응급의료센터로 온 신종 및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는 응급센터 내 음압격리병상에서 격리 후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9층 음압격리 병동으로 이동되므로 다른 입원환자나 의료진의 감염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

100%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한다는 장점이 있고 장비·시설·인력 면에서 기관급 응급센터로 운영되는 만큼 향후 큰 역할을 담당하리라 기대된다. 옥상 헬기장은 재난에 대비해 서울공항과 협력하고 있고 응급환자 발생 시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22개 진료과(8분과 포함) 전문의 소개

(2020. 5. 30 기준)



최선의 진료를 다짐하는 성남시의료원 이층의 원장과 의료진들

내과



소화기 내과	송정엽 이지은 조석정	상하부 위장관 진단 및 치료내시경, 기능성 장질환 간질환, 상·하부 위장관 내시경 체장 담도질환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노창석 서보미	천식, 만성폐쇄성·간질성 폐질환, 폐암, 폐렴, 결핵 천식, 만성기침, 비염, 두드러기, 약물·음식알레르기
신장 내과	김수진 구태연	급성 및 만성 신장질환, 투석, 고혈압, 사구체 신염 급성 및 만성 신장질환, 투석, 고혈압, 사구체 신염
류마티스 내과	유양선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자가면역질환, 통풍
순환기 내과	송봉근 김세훈 성주옥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고지혈증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고지혈증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고지혈증
내분비 내과	박소영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기타 내분비질환
감염 내과	김지연	감염병, 불명열, 감염관리, 예방접종, 해외여행 전후 상담
혈액종양 내과	최진호	호스피스 완화치료, 항암치료, 빈혈

외과



지선희	대장암, 복강경수술, 대장내시경, 대장 및 소장 일반질환, 양성항문질환
이용창	간담도, 담낭·췌장의 양성 및 악성 질환, 복강경수술
조정래	대장암, 복강경수술, 대장내시경, 대장 및 소장 일반질환, 양성항문질환

신경외과

박관웅	척추질환, 척추외상, 골다공증, 뇌졸중, 뇌혈관질환, 두부외상
한도영	척추질환, 척추외상, 골다공증, 뇌졸중, 뇌혈관질환, 두부외상
김명종	척추질환, 척추외상, 골다공증, 뇌졸중, 뇌혈관질환, 두부외상

소아청소년과

윤인애	감염병, 발열, 결핵, 임파선염, 호흡기질환, 예방접종, 신생아 상담
이은주	소화기질환, 영양, 변비, 비만, 복통
박효정	소아 내분비질환, 자선장, 성장클리닉, 성조숙, 소아비만

정형외과



박기홍	고관절 질환 및 골절, 무릎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스포츠 손상
유정현	척추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관절염, 골다공증, 외상
정수태	견주관절 질환 및 외상, 스포츠 손상, 관절 내시경
염윤석	무릎관절 질환, 인공관절술 및 관절 내시경 수술, 스포츠 손상

재활의학과



서경호	뇌졸중질환, 연하장애재활, 림프부종재활, 초음파클리닉
홍지성	중추신경계 재활, 통증클리닉, 스포츠재활, 노인재활, 족부재활, 화상재활
최은정	소아재활, 발달지연, 언어발달지연, 사경, 근전도, 족부 및 보조기 클리닉

가정의학과

하영호	종합검진 및 성인병검진, 만성성인병질환, 피부질환, 갱년기-비만클리닉
김종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병, 피부질환, 비만, 노인의학
이승화	가정의학, 만성질환, 내시경, 금연, 예방접종, 비타민·기능의학 클리닉

정신건강
의학과

김연진	중독정신질환,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증
김혜성	노인정신장애, 치매, 조현병, 우울증, 조울병, 불안장애

산부인과

조준식	자궁 및 난소종양, 골반장기 탈출증, 갱년기 및 폐경
서지현	생리불순, 자궁 난소종양, 만성골반통, 갱년기장애

성형외과

노영	미용성형수술, 재건성형수술
----	----------------

흉부외과

박준석	폐암, 식도암, 기흉, 난치성 흉부질환, 흉부외상
-----	-----------------------------

비뇨의학과



안태영	남성의학, 전립선질환
김재일	요로결석, 배뇨장애, 전립선 질환
한지연	배뇨장애, 여성 비뇨의학, 요로감염, 요로결석, 전립선비대증

이비인후과

김홍중	비염, 비중격만곡증 수술, 축농증 수술, 편도아데노이드 수술
-----	-----------------------------------

안과

신경윤	백내장, 각막질환, 결막질환, 안검염
-----	----------------------

신경과

강희진	치매 및 인지신경학
김지화	뇌졸중, 뇌혈관 질환 및 경동맥 질환, 혈관성 치매, 두통, 어지럼증

치과



이광호	치주질환, 임플란트, 보철, 장애인치과
백광우	통합치과, 소아치과, 장애인치과, 보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소현, 구민석, 박희경, 유찬선, 전고운	응급의학과	정연권, 김부경, 김성택, 심명보, 여운형, 이원웅, 정연희, 김수철
영상의학과	조은옥, 신원선, 황은진, 김지은, 최경애	진단검사의학과	김윤주(2020.6.1 발령)
병리과	이태희	중환자의학과	김태운, 이삼우



성남시민 독서 릴레이 ⑩ 정소영 세계동화작은도서관장

외로움을 넘어 빛으로 서다

빨려드는 이야기의 힘 『가재가 노래하는 곳』



『가재가 노래하는 곳』
멜리아 오언스 지음
살림출판사 펴냄



습지의 소녀 카야. 엄마는 카야가 여섯 살에 집을 떠났습니다. 형제들도 하나둘 모두 떠나고 열 살 무렵에는 사나흘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던 술꾼 아버지마저 집을 나가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카야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무치면서도 강하고 현명하고 수줍은 여인으로 자라납니다. 그 과정을 읽고 있노라면 책 속으로 들어가 꼭 끌어안고 등을 쓸어주고 싶습니다. 훌륭하고 자랑스럽지만 한 아이의 엄마인 저는 그저 안쓰럽기만 합니다.

오디오북으로 처음 만난 『Where the Crawdads Sing』은 1960년대 미국 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주 아우터뱅크스의 해안 습지가 배경입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나무와 새 이름이 자주 나와서 머리동절했지만, 끼룩끼룩 갈매기 울음과 질퍽한 습지의 풀냄새, 그리고 귀를 뿔 수 없는 이야기에 매료돼 연이어 두 번을 듣고 원서와 우리말로 번역된 『가재가 노래하는 곳』까지 읽었습니다. 야생 습지의 이국적인 모습은 번역가가 고르고 고른 우리말로 꼼꼼하게 묘사했습니다.

‘시카모어와 히코리 나무가 탁한 하늘을 배경으로 앙상한 가지를 드리우고 무자비한 바람은 황량한 풍광에 햇빛이 퍼뜨린 기쁨을 하나도 남김없이 빨아들였다. 물이 마를 리 없는 바닷가 땅에 아무 쓸모도 없는 건조한 바람이 불었다.’

겨울 차디찬 습지는 어린 소녀에게 얼마나 혹독했을까요? 출산 후 내내 시린 제 손목과 팔꿈치가 더 시러왔습니다.

열네 살이 되도록 글을 몰랐던 카야가 어떻게 자신을 둘러싼 자연 속에서 신비로운 야생의 법칙을 깨달아 가는지 촘촘히 보여주는 이 책은 단순히 성장소설로만 읽히지 않습니다. 카야는 마을의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아이의 엄마에게 더럽다는 말을 들었습

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가난하다고 외면하고 차별하는 가혹한 편견이 어디 1960년대 미국에만 있었을까요. 2020년의 한국에도 팍팍한 삶을 사는 청소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며 우리는 ‘고립’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지난 4개월간 가족 말고는 사람의 손을 잡은 적이 없는 제 손도 카야의 손처럼 이웃과 친구가 그림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서로 합의한 약속임에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영문도 모르고 가족에게조차 버려진 어린 소녀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렇다고 카야 곁에 아무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시 걸 Marsh Girl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카야를 잡화점을 하는 흑인 ‘점핑’과 그의 아내 ‘메이블’은 한결같은 정중함과 관심으로 대합니다. 어린 카야가 캐오는 홍합을 사주고 입을 만한 헌옷을 구해다 주는 것이 뭐 그리 큰일이겠느냐는 점핑 부부는 카야에게 버팀목이 됩니다. 카야가 재판정에 섰을 때도 백인들 속에 앉아 카야를 지켜봅니다. 카야가 힘들게 캔 홍합을 팔지 못하는 장면에서는 저도 조마조마 가슴 졸이며 청소년이 생산자일 때, 소비자일 때,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진지하고 정중하게 대하는지를 새삼 생각했습니다.

‘야생의 존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카야는 난생처음 스스로 문장을 읽은 후, “단어가 이렇게 많은 의미를 품을 수 있는지, 문장이 이렇게 충만한 것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말과 글은 생각을 담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런 문장을 가득 담은 이야기의 힘, 책의 힘은 더욱 귀합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글을 읽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부분이 나오면 괜히 몽클해집니다. 노인이 돼 처음 글을 익힌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처럼 말이죠.

카야는 교육이 아닌 삶으로 습지의 생태를 몸소 겪고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나중엔 도서관에서 책까지 빌리며 습지 전문가, 생물학자가 돼 갑니다. 제가 덩달아 으쓱해집니다.

이 책은 연애소설이자 살인사건이 얽혀있는 법정스릴러이기도 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며 사실과 허구를 넘나들고 애정과 증오를 엮어 놓았습니다. 450여 페이지가 단숨에 읽히는 흡인력 강한 이야기입니다. 한 인간이 스스로 외로움을 넘고 빛이 되는, 빨려 들어가는 이야기를 성남시민들에게 권합니다.

독서릴레이에서 지난달에 소개한 『죽음의 수용소에서 Man's Search for Meaning』는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자세가 삶을 이룩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됐고 카야의 고독과도 연결돼 몽클해 더군요. 성남시민 독서릴레이 7월 주자는 가천대 산업디자인학과 홍의택 교수님입니다. 흥미진진한 교수님이 추천하는 책을 빨리 읽고 싶습니다.

성남시민 독서 릴레이는
시민과 시민이 책으로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BOOK
RELAY
18

- ① 은수미 성남시장 『건지 감자껍질파이 북클럽』
- ② 노희지 보육교사 『언어의 온도』
- ③ 일하는학교 『배를 엮다』
- ④ 이성실 사회복지사 『당신이 옳다』
- ⑤ 그림책NORI 이지은 대표 『나의 엄마, 『어린이』』
- ⑥ 공동육아 어린이집 ‘세발까마귀’ 안성일 선생님 『풀들의 전략』
- ⑦ 구지현 만화가 『날마다 도서관을 상상해』
- ⑧ 이무영 영화감독 『더 로드(The Road)』
- ⑨ 김익경 소설가 『감정노동』
- ⑩ ‘비복스’ 김성대 대표 『단순한 진심』
- ⑪ 스토리텔링 포토그래퍼 김윤환 『포노 사피엔스』
- ⑫ 김현순(구미동) 『샘에게 보내는 편지』
- ⑬ 주부 유재신 님 『정원가의 열두 달』
- ⑭ 황찬욱 학원장 『위험한 과학책』
- ⑮ 한영준 송림고 교장 『라틴어수업』
- ⑯ 성남교육지원청 이동배 장학사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출출 수 없다』
- ⑰ 김혜원 호서대학교 교수 『죽음의 수용소에서』
- ⑱ 정소영 세계동화작은도서관장 『가재가 노래하는 곳』
- ⑲ 홍의택 가천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독자 리뷰 모집

성남시민 독서릴레이에서 소개하는 책을 읽은 후 리뷰(원고지 6매 이내)를 <비전성남> 편집실(이메일 sn997@korea.kr)로 보내 주세요. 선정되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031-729-2076~8



크리에이티브 도시 생태계를 통해 본 성남의 정체성과 비전

전정환
『밀레니얼의 반격』 저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필자는 성남시에 대한 여러 개의 인상이 있다.

첫 번째는 1989년 경원대학교(가천대학교의 전신)에 입학한 누나를 따라 성남시 원도심을 지나던 장면이다. 꼬불꼬불한 언덕에 밀집된 성남시 도심 거리가 인상적이었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7년 뒤 분당 아파트의 아이들이 뛰놀던 드넓은 광장이다. 그날은 직장 선배의 집들이였다. 지방도시 출신이었던 그는 30대 중반에 '천당 아래 분당' 아파트에서 행복한 가족의 꿈을 이룬 것이다.

세 번째는 2014년 판교 카카오에서 근무하던 날이다. 큼직한 구획에 잘 정비된 도로가 펼쳐진 이곳에, 유명한 IT 기업들이 다 모여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젊은 인재들의 출퇴근 인파가 넘쳐났다.

2019년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성남시는 전국에서 살고 싶은 도시 8위다. 하지만 이면에는 풀어야 할 난제도 많다. 어려움은 주로 성남시의 도시정체성에 기인한다. 세 권역이 각각 다른 이유로 '서울의 과밀로 인해 성 밖에 만들어진 도시'라는 형성 역사를 가지고 있다.

판교에는 그 어느 지역보다 인재와 기업이 넘쳐나지만 저녁과 주말이 되면 도심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분당의 주민들 상당수는 서울로 출퇴근하며 자신이 '강남에 가까운 서울사람'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 원도심은 판교, 분당과 소득격차가 크다. 성남시의 세 권역 간에는 서로 융화되지 못하고 갈등도 발생하곤 한다.

이렇게 성남의 어려움은 '정체성 위기'에서 비롯된다. 어떻게 해야 성남시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선은 성남시 세 권역 각각의 고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상을 그리고, 변화해야 할 이슈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는 이미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개척자들을 발굴해내야 한다. 또한 개척자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해내면서

장기적 변화를 확산해나가야 할 것이다. 10년 이상 걸리는 일이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려 보이지만 언젠가는 가속이 붙기 마련이다.

판교는, 창의성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성과 커뮤니티가 부족하다. 그것은 국가 주도적인 선택과 집중의 산업단지 개발을 한 것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수많은 인재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창의적인 실천공동체, 학습 커뮤니티를 만들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분당은, '가족의 행복 추구'라는 핵심가치에 충실하되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 밀레니얼 시대에 '행복한 가족의 이상은 이미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5년 전 이주한 분당의 가족들은 지금도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스카이캐슬'로 대변되듯 전 국민이 선택했던 강남은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 내지 못하고 있다.

...

성남의 세 권역이 크리에이티브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면, 성남시는 스스로 발전할 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기여하는 창의적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성남 원도심은, 지역혁신의 허브지만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그래도 시민사회의 역사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전국의 사회적 경제의 실험들을 모으고 발전시키는 지역혁신의 허브 역할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화폐가 그 증거다.

성남의 발전 가능성은 스타트업과 로컬크리에이터들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판교에서 시작된 스타트업 '당근마켓'은 지역 커뮤니티 회복의 가치를 추구한다. 공동창업자 김용현·김재현은 카카오 재직 시절, 판교

의 직장인들끼리 IT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서비스에서 시작했다. 다음 지역은 분당이었다. 분당은 육아용품의 거래가 많았고 어머니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됐다. 이후 전국으로 확산돼 일간 순사용자수가 156만 명을 넘어 이커머스 영역에서 쿠팡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또 다른 카카오 출신 백영선은 판교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판교의 인재들이 매주 저녁시간에 모여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도록 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 '낮선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후 창업했다. 카카오 출신 김성용은 주말에 각자의 집의 거실과 취향을 공유하는 '남의 집 프로젝트'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창업했다.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한 가족의 꿈을 이어가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 밖에도 이미 많은 개척자들이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지역의 공공도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크리에이티브 도시 생태계를 조성해내는 개척자가 될 수 있다. 공공이 민간과 함께 호흡하며 꾸준한 정책을 펴 나간다면, 10년 안에 '분당에 살면서 판교에서 일하고 원도심에서 창의적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성남의 세 권역이 스스로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갖고, 그 가치에 기반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다양한 개척자들이 크리에이티브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면, 성남시는 스스로 발전할 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기여하는 창의적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의 '한강의 기적' 신화를 넘어서서, 각 지역마다 고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발전이 시작되는 시기다. 서울 성 안에서는 시대와 지역의 변화를 이끌 혁신이 나오길 기대하기 어렵다. 언제나 혁신은 주변이라 불렀던 경계에서 시작된다. 성남이 만들어갈 크리에이티브 도시 생태계가 기대되는 이유다.





성남시립박물관 건립 '청신호'... 문체부 타당성 평가 통과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에 2024년 말 완공

성남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성남시는 올해 상반기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수정구 신흥동 2457번지 제1공단 근린공원 내에 건립하려는 성남시립박물관이 법률·정책·기술적 적정사업으로 선정됐다고 5월 13일 밝혔다.

문체부 사전평가심의위원회는 2~4월 서면·현장 평가·최종 프레젠테이션 심사 등을 통해 성남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을 '적정'으로 평가했다. 성남시립박물관의 주제를 성남의 도시역사에 집중한 점, 박물관 건립TF팀을 신설한 점, 박물관 사업을 시민참여형으로 기획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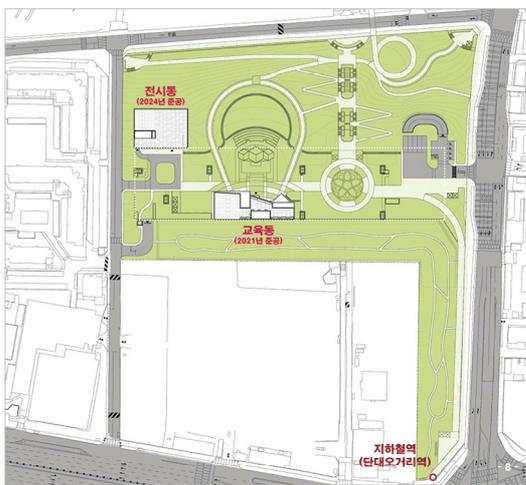
사전평가를 신청한 13곳 지자체 가운데 적정 평가를 받은 곳은 성남시 등 3곳뿐이다.

성남시는 지자체가 박물관을 건립하려면 필수로 이행해야 하는 사전평가 통과와 함께 건립비 300억 원 중 2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오는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건축·전시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성남시립박물관 건립 공사를 본격화한다. 건립 장소는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8만4,271㎡)에 조성하는 근린공원(4만6,615㎡·2021년 말) 내다.

공원 사업자가 교육동(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915㎡)을 2021년 말 먼저 짓고, 성남시가 전시동(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600㎡)을 2024년 말 완공한다. 개관 목표는 2025년 상반기다.



성남시립박물관이 들어설 신흥동 옛 제1공단 터



성남시립박물관 건립 배치도

박물관은 성남시의 태동이 된 광주대단지 사건을 재조명하고, 지역 경제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던 1공단의 역사, 시민 애환, 도시개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기록과 유물자료를 전시한다.

문화예술과 성남시립박물관건립TF팀 031-729-2717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워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어려워 말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남시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
문의 031)729-2149

- 역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소,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등 처리
-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등 수행

유형별 민원 신청

구분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내용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신청 기간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6개월 전까지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세금 → 납세자보호관 → 관련 서식 작성 후 각 구청 방문 및 팩스, 전자우편 신청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 031-729-2149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오포 추가연장 검토하겠다” 5천 명 넘는 행복소통청원 5호, 市 교통도로국장 공식 답변

성남시는 8호선 판교~오포 추가연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과 관련해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4월 28일 밝혔다.

김윤철 성남시 교통도로국장은 5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복소통청원 5호로 채택된 ‘8호선 판교~오포 추가연장 및 율동공원 활성화에 대해 “시민 여러 분께서 올리신 청원을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과업에 추가로 포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철도 노선 신설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등에 반영돼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하철 8호선 연장 청원이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하철 8호선은 서울시 강동구 암사역부터 모란역

까지 총 17.7km 구간에 17개 역이 설치돼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고, 8호선 모란차량 기지는 중원구 여수대로 182(성남시청 서쪽)에 있다.

8호선 판교~오포 간 추가연장 예상 노선은 국지도 57호선을 따라 분당구 백현동, 서현1·2동, 분당동 지역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능평리를 지나가게 된다. 국지도 57호선(판교 나들목~광주시 능평교차로) 구간은 하루 교통량이 7만4천여 대에 이르는 등 많은 시민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23일 광주시와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협약’을 하고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계약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다.

교통기획과 첨단교통팀 031-729-2473

시민에게 길을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정책공론화
시민참여단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종원 시까지 지속 모집
모집대상 성남시민 누구나
※ 성남시 소재사업장 종사자 및 학생도 가능
모집인원 1,000명
접수방법 온·오프라인 접수
온라인 : 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 이메일(mcoinom@korea.kr)
오프라인 : 직접방문, 우편발송, 팩스 송부
주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 성남시청 정책기획과(동관6층)
팩스 : 031)729-2239 ※ 팩스 송부 후 도착여부 유선확인
주요역할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형 참여
주요시책, 지역이슈, 갈등요인 등에 수시 여론 조사 참여
※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되어 토론회 및 여론조사 참여시 활동 보상 지급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031)729-2153



응원해요! 스타트업 여성소비자인 대표가 기획·개발한 여성용품 기업 '바이오가닉'

나눔·기부 실천하며 바르게 만든 '착한 생리대'로 글로벌 사회적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취재 이훈이 기자 exlee1001@naver.com



르씨엘과 함께하는 (주)바이오가닉 유고은 대표

여성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주)바이오가닉은 프리미엄 유기농 순면생리대 르씨엘 생리대를 제조 판매하는 성남의 기업이다. 지난해 3월 창립해 올해 1주년을 맞은 새내기 기업이지만, 사업개시 초기부터 총 판매수익금의 3분의 2를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남다른 기부와 후원으로 주목받는 스타트업 (주)바이오가닉의 유고은 대표를 만났다.

르씨엘을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여성에게 생리는 반평생 40년간 지속되는 일상입니다. 유해생리대 파동, 운동화 깔창을 생리대로 사용하는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여성들의 사연 등을 접하면서 품질과 가격을 충족시키는 가성비 좋은, 합리적 가격의 안심생리대를 만들고, 저 또한 3살 아기의 엄마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후원활동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창업 3년 전부터 여성들에게 꼼꼼히 모니터링을 하며 기존 생리대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을 설계해 출시했습니다.

제품의 특징점은 어떤지요?

유기농 목화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르씨엘의 유기농 순면커버는 OCS100 최고급 등급을 획득한 미국 텍사스산 유기농목화이며, 3년간 화학비료와 살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한 목화만을 사용합니다. 스위스 SGS사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심사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유해물질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받았고, 피부알러지 진무름 등의 피부자극을 고려해 독일 더마테스트를 통해 최고급 엑셀런트 등급을 획득하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등록된 제품입니다.

최신설비를 통한 100% 국내제조, 위생적인 원터치 오픈 방식(중형에 한함), 활동성을 고려한 타사보다 여유 있는 길이와 옆샘방지커버, 독일 헨켈사의 접착제 사

용 등 안전성과 실용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르씨엘을 판매하며 고객님들이 말씀하시는 '소비와 동시에 기부도 하는 착한소비 생리대네요', '최고급 순면이라 너무 부드럽고 포근합니다', '패키지도 예쁘고 냄새도 없고 예민한 피부에 좋아 생리대 유목민 칭찬해요' 등의 만족 후기를 보면 정말 보람이 큼니다.

기부하는 착한 생리대로도 유명합니다.

취약계층 여성들의 생리대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저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현재 총 판매수익금의 75%를 생리대 기부에 사용 중인데, 온라인채널인 클라우드펀딩 판매와 SNS 판매, 그로 인한 수익금 일부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인 성남시를 통해 공식기부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미국·중국·인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에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국내 매장은 유명백화점 3곳과 프리미엄마트 2곳이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의 주요도시 상권 60개, 30개 매장에서 각각 판매 중입니다. 온라인은 자사몰인 르씨엘몰 포함, 100여 개 쇼핑몰에서 판매 중이며, 해외로는 아마존 미국이 있습니다. 올해 2월 공영홈쇼핑 첫 론칭은 50분 방송 중 27분 만에 조기 매진돼 방송이 끝날 정도로 성황리에 마쳤으며 홈쇼핑과 메이저 홈쇼핑도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박지윤 아나운서와 함께 SNS에서 르씨엘을 정기적으로 홍보 판매해 수익금을 같이 성남시를 통해 공식기부했으며, 정기적인 기부활동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저소득 여성들에게까지 넓혀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바이오가닉의 목표는 수익 창출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는 기업입니다. 저 또한 임신과 출산으로 다년간 경력단절 상태에서 창업했고 그 고충을 알기에, 취약계층 2명과 같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출 증대와 더불어



왼쪽부터 스위스 SGS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시험성적서, 독일 더마테스트 엑셀런트 등급, 우수기술기업 인증서, OCS100 유기농 인증서

어 고령자·경력단절자 등 취약계층 고용인력 충원에도 더 힘쓰려 합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프리미엄 유기농 소재 개발을 선도하고, 생리대 걱정 없는 여성복지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성남시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보육센터 사무실 무상지원과 사업개발비, 전문인력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받은 지원 이상 더 많은 기부로 여성들에게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번 5월부터는 배우 강소라 씨와 공식모델계약을 했으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소비자가 좀 더 많은 곳에서 르씨엘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구매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예비사회적기업인 스타트업 기업이지만, 늘어나는 해외수출 등에 힘입어 2022년에는 100억 매출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부와 후원을 통한 공적 가치의 실현으로 내실 있는 세계적인 스타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주)바이오가닉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 2101호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두런두런 취업 & 성남형 청년 인큐베이팅 참여사업장 모집

모집기간 2020. 5. 22.(금) ~ 6. 5.(금)

모집대상 성남시 관내 19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모집규모 00개 사업장

사업명	성남두런두런 취업	성남형 청년 인큐베이팅
제용형태	정규직	파트타임(4시간)
지원내용	지역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장에 월 인건비 200만원 이상으로 80%의 인건비 지원(월 최대 160만원)	주5일, 19~44시간 근무로 월 최저 인건비 150만원 이상으로 90%의 인건비 지원(월 최대 843,750원)
사업자 부담	인건비용 기금부담률 20% 및 사회보험료 연방 연간 부담금부담, 퇴직금	인건비용 기금부담률 10% 및 사회보험료 연방수당 기금 부담
지원기간	채용 시부터 2년 *정당징수에 따라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채용 시부터 2020년 12월까지

※ 성남시·유연한·청년기업 3개 영역 해외(고용허가 지역)

문의처 성남시청 청년정책과 (T. 729-8763-8765)



작은 실천, 지구를 살린다

폐LED, 자원 재활용 위해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해야

플라스틱, 철, 알루미늄, LED칩 등 추출 가능

취재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쓰레기도 자원이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다. 그만큼 쓰레기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가고 있다. 단순히 버려지던 쓰레기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쓰레기를 재활용, 재사용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는 재활용품 보상 교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폐건전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25개를 모아 동 행정복지센터나 8개 사회복지관(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재개관 이후)에 가져가면 20ℓ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교환할 수 있다. 종이팩은 규격별로 일정량을 모으면 3겹 화장지 1롤과 바꿀 수 있다. 전자제품·전선을 모아 그 안에서 금속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폐휴대전화기·폐건전지가 도시광산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그 안에서 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LED도 마찬가지다. 폐LED에서는 플라스틱, 철, 알루미늄, LED칩 등을 추출할 수 있다. LED조명은 초기 구입비가 기존 형광등보다 비싸다. 하지만 기존 형광등보다 밝고 열 발생이 적어 등이 뜨거워지지 않는다. 또 자외선과 적외선 배출이 적어 피부와 눈에 부담이 없고 수은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전기가 절감되며 오래 사용할 수 있어 날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폐형광등은 별도의 수거함이 있어 알루미늄, 유리, 니크롬선, 신추, 고철 등의 재활용이 잘되는 반면, 폐LED의 경우 형광등에 비해 분리 배출되지 못하고 종량제봉투에 버려지고 있다. 종량제봉투에 버려질 경우 폐LED가 소각돼 소중한 자원이 그대로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폐LED 시범사업을 통해 성남시 등 12개 지자체와 함께 4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4개월 동안 폐LED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폐LED가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내 기존 형광등 수거함에 폐LED를 분리 배출해야 한다. 형광등 수거함이 없는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폐LED만 따로 모아서 집 앞에 분리 배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자원 재활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우리가 만드는 쓰레기에 대한 올바른 선택이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살린다.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031-729-3204

성남시 종이팩(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기타음료팩) 폐건전지를 모아서 거주하시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져오시면 **화장지,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드립니다.

종이팩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기타음료팩)

- 1000ml 15개
- 500ml 25개
- 350ml 35개
- 200ml 45개
- 100ml 55개

교환방법

함께하고 → 펼치고 말려서 → 거점수거지역

폐건전지

25개 → 종량제 봉투(20ℓ) 1장

규격에 상관없이 25개 폐건전지 25개당 종량제봉투 1장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1주에 최대 1인당 종량제 봉투(20ℓ) 최대교환 수량 4개로 제한

교환장차

종이팩, 건전지 수거함 →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방문 → 화장지, 종량제 봉투 교환

거점수거처

·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수지구 수성로 202번길 15-1(1층) 786-0000 | 동 행정복지센터: 동문로 100-1(1층) 714-4000
 ·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수지구 권곡로 89(2층) 748-7101 | 동 행정복지센터: 동문로 100-1(1층) 714-4000
 ·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동문구 권곡로 40(1층) 708-0107 | 동 행정복지센터: 동문구 권곡로 40(1층) 708-0107
 ·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동문구 서문로 34(1층) 800-1100 | 동 행정복지센터: 동문구 서문로 34(1층) 708-0100

새로 바뀔니다

성남시 종량제 쓰레기봉투 규격 변경(시행일 2020. 7. 1)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100ℓ를 없애고 75ℓ를 신설

· 종량제봉투 규격 변경 및 판매가격

구분	용량	판매가격	
		당초	변경
일반용	50ℓ	1,220원	1,250원
	75ℓ	신설	1,880원
	100ℓ	2,420원	삭제
사업장용	75ℓ	신설	3,000원
	100ℓ	4,010원	삭제

* 기존 100ℓ는 재고 소진 시까지 구매·사용 가능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거, 야간에서 주간으로(시범운영 5. 1~6. 30, 시행일 2020. 7. 1)

· 생활폐기물 주간 수거: 월~토(공휴일·일요일 미수거)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반쓰레기(소각용)	20:00~익일 05:00	05:00~14:00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20:00~익일 05:00	05:00~14:00
쓰레기 배출시간(중전과 같음)	일몰 후 오전 배출(공동주택→상가는 지정장소)	
불연성 생활쓰레기	소규모 불연성 생활폐기물은 전용매대 구입 배출 후 해당지역 수거업체에 신고	

* 설·추석 연휴 등은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

생태 이야기

햇빛을 나누는 식물, 몬스테라

취재 김기숙 기자 tokiwife@naver.com



빛은 식물이 스스로 양분을 만들게 하는 근원적인 에너지원으로 식물이 꼭 확보해야 할 자원이다. 6월이 되면 따스하던 봄별이 어느새 뜨거운 햇살로 바뀐다. 점점 길어지고 강해지는 햇빛을 강력한 생존의 에너지로 인식하는 식물들은 빛을 확보하는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어떤 식물은 낮 동안의 빛의 각도나 온도변화에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집광판 역할을 하는 잎은 한 나무에서도 위치에 따라 다르다. 햇빛이 많이 드는 높은 곳과 바깥쪽의 잎은 두툼하고 색이 짙다. 두툼하고 짙은 색의 잎을 양엽이라고 하는데 양엽에는 엽록소가 깊이 분포하고 있어 많은 양의 햇빛을 이용해 단시간 내 많은 양의 양분을 생산한다. 반면 아래쪽이나 안쪽에 있는 음엽은 두께도 얇고 색도 연하다. 음엽은 가능한 한 아래로 떨어지는 빛 조각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넓게 퍼져 있다.

빛을 확보하기 위해 빨리 자라는 것이 우선인 어린 식물들은 모든 에너지를 줄기의 중심으로 모아 위로 향하는 데 힘을 기울이며 햇빛을 얻을 수 있는 고지를 차지하는 데 전념한다. 그러나 모든 식물이 높이 자라 햇빛을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것이 어려워서 언제나 큰 나무에 가려져 큰 나무의 가지 아래 빈 공간에서 삶을 이어가는 식물도 많다.

숲속 어두운 곳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항상 빛 부족에 시달린다. 가끔 바람이 불어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빛은 이 식물에게 아주 요긴하다. 은근하고 지속적인 약한 빛보다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강한 햇빛에 잎들의 양분 생산이 더 많다고 한다. 낮은 키의 식물들은 빛 한 조각이 아쉬운 것이다.

그런데 식물 중 주변의 식물들과 햇빛을 나누고 또 자신의 잎이 최소한의 그늘을 만들도록 발전한, 참 고마운 식물이 있다. 몬스테라다. 멕시코가 원산지며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고 천남성과에 속하는 몬스테라의 잎은 다소 깃처럼 갈라지고 군데군데 구멍이 파여 있다. 갈라지고 구멍 뚫린 잎 덕분에 폭우와 강한 바람에 견딜 수 있고 밑에 달린 잎에 광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게다가 몬스테라는 공기정화 능력도 있고 식물체 배수 조직에서 스스로 물 조절을 할 수 있는 일액현상을 보이는 독특한 식물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 배려와 공동체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즘, 햇빛을 독점하기보다 주변의 식물들과 나누는 잎을 가진 몬스테라가 더 특별해 보인다.



NEWS 01

성남시-광운대 '바이오헬스' 국가 공모사업 유치

6년간 100억 투입, 바이오+AI융합 커뮤니티 헬스케어 연구·실증

성남시와 광운대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분당구 정자동 소재)는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 및 보건의료 기반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장중심사업 위주의 산업통상자원부 3개 공모사업에 지원해 최종 선정됐다고 5월 11일 밝혔다.

사업 유치를 위해 광운대는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 커뮤니티 헬스케어 분야에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계획을 성남시에 제안했고, 성남시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바이오-커뮤니티헬스케어-인공지능 연구와 모델 실증으로 연결되는 '아시아 실리콘밸리 바이오헬스 벨트 전략사업으로 보건-산업 생태계 구축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 성남 재가보건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헬스케어 서비스 기반 유니버설 홈 케어 제품 및 시스템 개발' ▲ PHR(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축을

위한 'AI 기술 적용 대사증후군 예방 및 질환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 및 실증' ▲ AI-바이오 분야 전염성 질환 관제 및 현장진단용 기기 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업연구센터' 성남시 유치 등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와 광운대는 3개 사업을 융합하는 전략으로 '바이오-AI-커뮤니티 헬스케어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며, 6년간 국비 70억 원, 시비 30억 원을 포함 총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또 바이오헬스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기관(보건소·의료원) 등 다양한 기관이 융합되고 시민이 연계되는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을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보건의료와 협력해 '산업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바이오헬스팀 031-729-8912

NEWS 02

7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 쓰레기 수거 '주간' 전환

저녁이 있는 삶, 안전 확보... 시행 전 두 달간 시범 운영



성남시는 7월 1일부터 청소대행 업체 환경미화원의 생활폐기물(이하 쓰레기) 수거 작업을 주간 시간대로 전환해 운영한다.

로 전환해 운영한다.

현행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인 쓰레기 수거 시간은 7월 1일부터 오전 5시~오후 2시로 바뀐다.

쓰레기 수거 작업이 어두운 심야에 진행돼 발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시야 미확보와 안전사고 위험성, 수면 부족, 피로 누적 등에 관한 우려를 없애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대상자는 야간에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는 성남시 16곳 청소대행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580여 명이다.

시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주간 전환 연구용역' 때 진행한 환경미화원-지역주민 설문조사, 시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해 쓰레기 수거 작업 시간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변경 시행에 앞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쓰레기 주간 수거제를 시범 운영한다. 출근 시간대 쓰레기 수거 차량 이동 시간 증가에 따른 1회당 작업 시간 변동 상황, 주택가 골목길 인력·장비 추가 여부 등 수거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해 보완 시행하기 위해서다.

시민들은 수거 시간 변경과 관계없이 평소대로 일몰 후 쓰레기를 내놓으면 된다.

성남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주간근무 제도는 환경미화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031-729-3193

NEWS 03

성남시 소상공인·개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개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내야 하는 사용료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도로법과 성남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로 규정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감면 지원책을 추진하게 됐다.

감면 대상자는 도로점용료를 내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감액금은 14억5천만 원이다.

지난 3월 부과한 도로점용료 56억6천만 원(2,572건) 가운데 3개월 치(25%)에 해당한다.

이미 도로점용료를 낸 사람은 환급해준다. 환급 신청서(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와 통장 사본을 허가지역 관할구청 건설과에 방문 또는 팩스(수정·031-729-5526 중원·031-729-6526, 분당·031-729-7526)로 내면 된다.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환급한다.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감액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재발송한다.

도로과 도로정비팀 031-729-8632

알아두면 좋아요

2020 성남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 지원대상 공동·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약 200세대)
- 신청기간 5. 1~ 11. 30(선착순 접수)
- 지원금액 54만2,600원~60만2,600원(자부담 2만~8만 원)
- 설치효과 월평균 7천 원 전기료 절감, 한 달에 34kW 전기 생산 등
- 신청절차 설치업체 선택·계약 후 지원신청
- * 성남시 홈페이지 일반공고 2020-937호 참고

기후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031-729-3283

시민과 함께하는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공모

- 공모기간 5. 1~8. 31
- 대상지역
 - ① 주요 관광지, 대로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 밀집지역
 - ② 100개소 이상 업소 밀집돼 있는 지역 및 건물
 - ③ 타 지역으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등
- * 주택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거나 예정된 구역 제외
- 개선내용 친환경 LED 간판 교체
- 지원내용 업소당 300만 원(초과비용 업소주 부담)
- 신청자격 10인 이상 20인 이내 성남시 거주 주민 또는 단체로 구성된 주민협의회
- 신청기간 8. 24~8. 31
- 접수처 성남시청 건축과(동관 7층) 접수

건축과 도시경관팀 031-729-3502

2020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신청기간 5. 1~6. 19
- 지원제품 정보통신보조기기 9종 (시각 38종, 지체·뇌병변 27종, 청각·언어 26종)
- 지원내용 제품가격의 80% 지원(나머지 20%는 개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약 90% 지원)
- 신청방법
 - ① 온라인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http://www.at4u.or.kr>) 직접 신청
 - ② 오프라인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정보통신과 문의
- 신청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장애인증명서 등 (미성년자 신청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리 신청서 위임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 1588-2670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031-729-2416



드라이브 스루 차량 무료 방역, 5분이면 OK!

성남시청·성남종합운동장·율동공원 주차장서 소독 서비스 운영

취재 정경숙 기자 chung0901@naver.com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성남시가 운영하는 '드라이브 스루 차량 방역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드라이브스루 차량방역은 분당 율동공원 B주차장, 성남시청 야외주차장, 성남종합운동장 주차장 등 3 곳에서 이뤄진다.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차량을 비롯해 방역을 원하는 차량은 모두 소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월 23일 기준 율동공원 B주차장 998대, 시청 야외주차장 512대, 성남종합운동장 주차장 163대 등 총 1,673대의 차량이 '드라이브 스루 차량 방역 서비스'를 받았다.

차량이 소독장소에 도착하면 운전자는 내리고 방역 인력이 초미립자 살포기로 차량 내에 방역 약품을

분사하고 핸들, 손잡이 등 감염빈도가 높은 차 내부 구석구석을 닦은 후 차량을 환기하면 완료된다. 소요 시간은 약 5분 정도다.

율동공원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박 모(위례동) 씨는 "가끔 외부 사람을 태우는 경우가 있어서 자체 소독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차 내부까지 꼼꼼하게 방역을 해주니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어 믿음이 간다"면서 마음까지 개운하다는 이용소감을 전했다. 운영 시간은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방역소독 장비가 없어 불편을 겪는 가구에 방역장비를 대여해 주고 있다. 방역장비는 방역물품을 포함한 분무기고, 다수의 이용을 위해 1가구 4시간으로 제한한다.

성남시 재난안전관 관계자는 "이번 드라이브 스루 차량 방역과 방역장비 대여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소독이 일상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hoto essay 일상이 다시 시작될 때,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수내3동 신해철거리 앞 그늘막 벤치

생활 속 거리두기로 우리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두 팔 간격의 거리를 두고 나섰지만, 푸른 잎과 파란 하늘이 우리 마음을 잔뜩 흥분시킵니다. 우리 모두의 '덕분에' 삶이 조금씩 복원되고 있습니다. 건다 보니 횡단보도 앞 그늘막에 전에 보이지 않던 작은 벤치가 있습니다. 덕분에 띄약별을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성남시의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성남시는 시민들의 복지와 행복 그리고 안전을 위해 작은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아동을 대변하는 독립적 인권보호체계

성남시 아동권리 옹호관



성남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가 법률, 제도, 프로그램에 골고루 보장돼 아동이 살기 좋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동 권리에 입각해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 구제, 발굴 및 제언하며,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대해 자문을 실시합니다.

아동권리 옹호관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가 침해당했을 아동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동권리 지킴이입니다.

성남시에는 네 명의 아동권리 옹호관이 있습니다.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서태원 관장,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인경 소장, 초록우산 경기아동옹호센터 김승현 소장, 법무법인 피터앤김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성남시는 아동권리 침해사례 신고를 받고 있으며, 아동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시 아동권리 옹호관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031-729-2942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제도

다들 뭐 성남, 시민이 가장 아파

그중 민원은 **시민옴부즈만** 과 상담하세요.

시민옴부즈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 신청대상_ 성남시 불합리한 행정행위로 고통받거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받은 누구나
- ▶ 신청방법_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 ▶ 문 의_ ☎ 031)729-2145~2146, 2120, 2180
- ▶ 장 소_ 성남시청 동관 9층 시민옴부즈만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감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사관 조사2팀 031-729-2145



외롭고, 힘들고, 슬펐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성남시지회 옥승민 회장

취재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지난해 6월 현충일 행사 때 헌화와 묵념하는 옥승민 회장

호국보훈의 달 6월을 앞두고 전물군경미망인회 성남시지회(회장 옥승민)를 찾았다. 코로나19로 회원들이 대면할 수 없어 발길이 뜯겨갔다는 옥승민 회장, 요즘 부쩍 회원들의 안부가 더 궁금하다고 했다.

“회원 서로가 상부상조해 자활능력을 기르고, 순국자의 유지를 이어 조국 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4년 10월 성남시미망인회가 설립됐고, 1992년 12월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경기지부와 성남지회가 합병했습니다.”

매월 1일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옥승민 회장은 현충탑 참배를 한다. 매년 현충일이 되면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전몰장병들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에 회원들이 참석한다. 회원들의 애경사를 챙기고, 사무실을 찾는 회원들을 소중히 맞이하는 일,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모두 옥회장의 몫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다. 만나지 못하는 동안 불편한 곳은 없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됐다는 옥승민 회장.

미망인회 회원(922명)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삶바느질로 자식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가정을 지켜온 미망인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눈물과 한숨 없이 들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외롭고, 힘들고, 슬펐던 이야기는 서로에게 위안이 됐다. 매월 15일 월례회에 60여 명 회원이 참석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 옥승민 회장은 경찰 가족이다.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참으로 막막했던 지난 시간을 그래도 잘 견디며 살았다. 아이들이 어려서 힘든 시간을 보냈



지만 두 딸이 반듯하게 자라준 것이 고마울 뿐”이라며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옥 회장은 서울 본회에서 감사 일을 하게 됐고, 성남으로 이사 와서는 백현동에서 통장을 하면서 지역사회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미망인회 김현례 지회장, 문인자 지회장 다음 박건용 지회장이 본회 총장으로 가면서 미망인회 사무장으로 일하던 2017년 5월 지회장으로 취임했다. 성남시 9개 보훈단체 회장 중 유일한 여성회장으로 보훈단체 회장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며 일해 나가고 있다.

5월 가정의 달과 6월 호국보훈의 달, 중환회원, 독거회원, 불우회원을 위해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일른 끝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다립니다. 회원들을 만나는 날까지 미망인회 성남지회는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성남시와 경기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유익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 고마움을 표한다고 했다. 보훈 가족에게도 합당한 예우 지원으로 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좀 더 나은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응원을 보낸다.



생활법률
Q&A

상속분할협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요?

Q. B인 어머니가 사망하고, 남은 자녀 갑·을·병은 어머니의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B는 3억 정도의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상속인 갑·을·병 중 막내 병은 채무가 많았습니다. 상속인들은 만일 병이 상속을 받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뺏길 것이니, 어머니의 부동산은 갑의 단독소유로 하자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금융기관에서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병의 지분만큼인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A.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은 그 실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을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갑·을·병의 상속재산분할협약은 병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해하는 행위로 취소되고, 부동산의 단독 상속자인 갑은 가액배상으로 1억 원을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합니다. 병이 정상적인 상속을 받았다면 1/3 지분(1억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형제들과 협의해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협약을 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기 때 문입니다. 이는 외견상으로는 상속을 받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상속을 받아 채무를 면탈하는 채무자의 행태를 제재하는 판결입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홍탁터) 031-729-2493





365일 + 열린의회

전문성에 기반한 + 정책의회

새로운 시대를 여는 + 혁신의회

정의로운 평등을 추구하는 + 의회



시의회 1층 홍보관에 전시 성남시의회 초대 의원 신분증 기증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4월 28일 의장실에서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기증식'을 열었다.

박문석 의장은 성남시의회 제1대 의원인 유선일 전 의원을 만나 시의회가 걸어온 길과 시의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991년 4월 15일은 제1대 성남시의회가 개원한 날로, 특히 당시 신흥동이 지역구였던 유선일 전 의원의 신분증은 '성남시의회 제1호 의원 신분증'이어서 매우 의미가 깊다.

기증받은 신분증은 성남시의회 1층 홍보관에 각종 의회 자료와 함께 전시하고 있다.

박문석 의장은 "성남시의회 역사의 산증인이신 선배 의원님과 소통하며 시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금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역사적 가치가 깊은 제1호 의원 신분증을 홍보관에 전시해 시민들과 함께 시의회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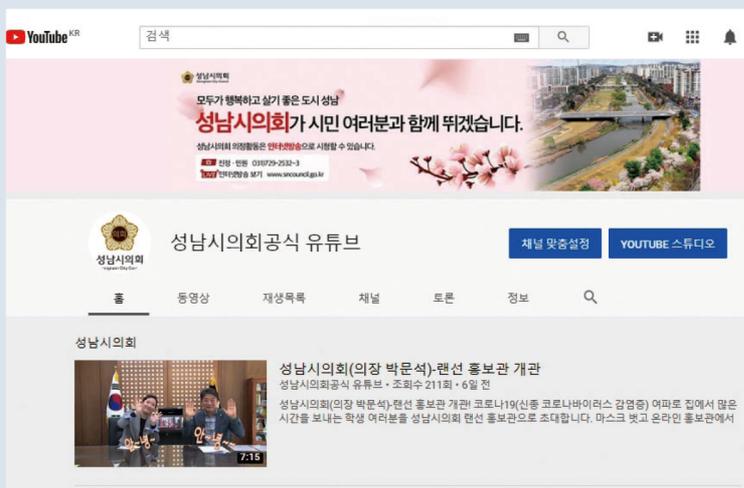
성남시의회, 선배 의원에게 시의회의 길을 묻다! 전국 최초 일일 명예의장 위촉

성남시의회는 시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선배 의원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전·현직 의원 간 소통으로 시의회의 역사성을 이어가기 위해 5월 4일부터 '일일 명예의장'을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의회의 '일일 명예의장'은 전국 최초로 전직 의원을 대상으로 일일 명예의장을 위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시의회는 의장으로 재임하지 않은 전직 의원 중 대수별 연장자 순으로 일일 명예의장을 선정하고, 명예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시의회 현황 및 코로나 대응실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홍보관을 비롯한 의회 시설을 견학한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명예의장의 건의사항과 정책제언은 향후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박문석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성남시 47년 역사를 이끌어 오신 선배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오늘날의 성남시가 존재한다"며 "전직 의원님들의 연륜과 경험은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나침반이 될 것이다. 전현직 의원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고민하며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과 소통하는 성남시의회 SNS



성남시의회는 SNS를 통해 더 많은 정보 제공 및 시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ncouncil/>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n_council/
- 유튜브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검색



성남시의회 온라인 홍보관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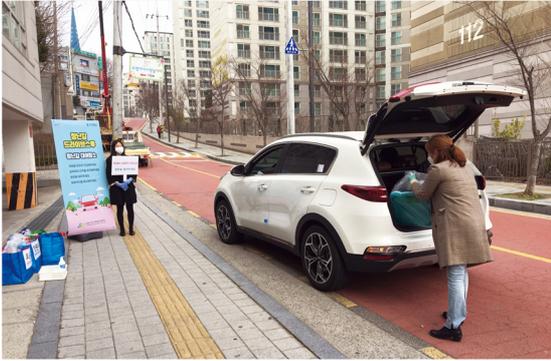
성남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시의회 홍보관을 견학할 수 있도록 동영상 제작했다. 성남시의회가 하는 일, 시의회 견학내용 등을 영상으로 담아 소개하고 있으며 동영상은 관내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온라인 홍보관은 유튜브 및 성남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ncouncil.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육아 건강한 가정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대여 드라이브스루 & 워크스루

장난감 컨설팅을 통해 자녀에게 맞는 장난감을 대여한다. 대상은 장난감도서관 회원이며, 3주간 3점을 빌려준다.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8개 지점에서 운영한다.

신청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장난감도서관 지점마다 이용방법이 다르니,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에서 세부사항 확인 바람.



크린토이

성남시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장난감을 세척, 소독해준다. 세척은 먼지제거 → 고압스팀청소 → 세정티슈세척 → 플루겐바이러스 소독 → 자외선 살균소독 → 자연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장난감 수량은 블록 한 종류나 장난감 3점이다.

이용방법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 사전신청(커뮤니티 → 공지사항) → 장난감 사진 및 신청서 메일발송(sneducare3@naver.com) → 장난감 무인접수 → 세척 및 소독 → 드라이브스루 장소에서 장난감 수령

분당구청아이사랑놀이터 031-715-1640

양지아이사랑놀이터 031-736-1640

아이사랑놀이터 홈콕 놀이키트 가정 배송

아이사랑놀이터 놀이프로그램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놀이키트를 가정으로 배송한다. 대상은 영유아 자녀를 둔 성남시민 및 성남시 재직자다. 한 가정에 1개 놀이키트를 배송하며 영아, 유아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신청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커뮤니티 → 공지사항)

※ 매주 목요일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에서 홈콕 놀이키트 영상 확인 가능

집에서 쉽게 따라하는 Home 놀이터

집 안의 놀잇감을 찾아라! 가족이 다 함께 집에서 놀이영상을 보고 따라하며 즐길 수 있다. 성남시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놀이영상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집에서 놀(면서) 자(란다)~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부모교육-놀이키트를 집으로 보내준다. 대상은 영유아 자녀를 둔 성남시민이다. 한 가정에 1명, 동일한 놀이키트 1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①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 선착순 신청

(부모교육행사 → 육아종합지원센터)

② 온라인교육 이수(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

③ 신청 홈페이지에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메일 발송(sneducare@hanmail.net)

※ 온라인교육 이수하고 신청서를 신청 다음날까지 메일 발송해야 신청 완료, 자세한 사항은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 참조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721-1640(내선 4번)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놀이공간 이용

성남시 거주 13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부모와 자녀 동반 입실)은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신흥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놀이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화·수·목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 토요일 오후 1~3시이다. 비예약제로 운영되며 점심시간(12:00~13:00)은 쉰다. 최초 방문 시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후 이용하면 된다.

워킹패밀리 문화의날 참여 안내

성남시 거주 가정을 대상으로 '우리 가족 홈캠핑 요리'를 진행한다. 6월 15일(월) 오전 10시부터 29일(월) 오후 4시까지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각 가정에서 실행한 후 인스타그램 인증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안내문 참조.

성남시민을 위한 무료 노무·양육상담

구분	노무상담실	양육상담실
일정	매주 화요일 18:00~21:00 ※ 내방상담 어려울 시 전화 및 사이버상담 가능	매주 목요일 16:00~21:00
대상	성남시 거주 및 관내 재직자 (자녀 동반 불가)	성남시 거주 또는 관내 재직 부모 ※자녀 동반사항은 전화문의 필수
내용	육아휴직, 부당해고, 퇴직, 임금체불 등 근로 상담	자녀문제행동, 양육고충, 발달검사, 다중지능검사 등
장소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신흥) 내 상담실	
신청	월~금요일 09:00~18:00 전화 접수(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일생활균형지원팀 031-754-9327

여성의 꿈과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

http://www.snw.or.kr

구분	세부내용
취업자 사후관리	2020년 워라밸을 위한 고충상담소(심리 및 노무 전문상담) [상담일정] 5~11월(매주 월요일 19:00~21:00) [접수인원] 1일 2명(선착순 예약) - 무료 [상담내용] - 심리상담 : 직장 및 가정 고충상담, 경력개발 및 취업상담 - 노무상담 : 근로계약, 부당해고, 퇴직금, 출산휴가 및 성차별 관련 모성보호제도 등 노무-인사에 대한 상담 [대상자]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자 또는 구직자 [접수방법] 전화, 방문 접수
경력단절여성 취업대비교육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자신감 회복하기, 구직활동 실천준비 [교육일정] 6. 8~6. 12, 6. 22~6. 26, 6. 29~7. 3/ 총 5일 20시간 09:30~13:30(1일 4시간) [교육내용] 자기이해, MBTI 검사, 직업선호도검사, 직업세계의 변화이해, 실천준비(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면접) [대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구직여성(고용보험가입자,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제외) [접수방법] 전화, 방문 접수
취업성공 패키지	상담·훈련·알선 세 걸음에 취업성공 [프로세스] 1단계 : 심층상담, 직업심리검사, 개인별 취업계획수립(참여수당 최대 20만 원) 2단계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계좌제 훈련지원 등(훈련수당 최대 40만 원) 3단계 :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 클리닉, 채용정보 제공 및 알선(참여수당 최대 6만 원) [대상자] 청년층(만 18~34세) :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 상급학교 비진학 고교 졸업년도 재학생, 상급학교 비진학 대학·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대졸 이상 미취업자 중·장년층(만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실업자 [접수방법] 전화, 방문 접수(방문접수는 중장년층에 한함)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우레광장로 21-9(창곡동 562-1), KCC웰스타워 3층

접수 및 문의 전화 및 방문 접수 031-718-6696



명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유방암 절제와 동시 재건 수술, 여성 자존감 지켜준다



명유진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성형외과

한국 여성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암, 유방암. 유방암은 수술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로, 암과 함께 유방 전체를 잘라내는 전(全)절제술 또는 부분절제술과 방사선치료를 함께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원래 유방의 형태를 유지하거나 보형물 또는 자가조직을 이용해 새로 만들어 주는 '재건'입니다. 이제는 유방 전절제술 후 시행하는 유방 재건이 건강보험에 적용돼 많은 환자가 암 수술과 동시에 가슴을 복원하는 동시 유방 재건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방 재건 수술이 갖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방 재건 수술, 암 치료 후 삶의 질·자존감 향상

유방암 수술로 한쪽 유방을 잃은 여성이 느낄 상실감과 심리적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실제로 만나본 환자 중에는 “암 자체보다 유방을 잘라내야 하는 사실이 더 두렵다”고 털어놓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도 유방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존감, 삶의 질, 성적 활동, 사회적 역할, 정신적 건강, 미래 건강에 대한 고민 등 모든 항목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 인종, 경제 수준에 관계 없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힘든 일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에 반해 유방암 수술과 동시에 유방 재건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재건을 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으며, 정신적인 건강과 삶의 질 역시 일반인의 수준까지 향상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재건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암 치료 이후 직장으로의 복귀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유방암을 앓지 않은 사람들에 가까울

정도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팔·어깨 포함한 상체 운동 기능과 회복에도 도움

한쪽 유방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의 변화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유방 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부와 연부조직, 근막과 근육,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의 절제도 함께 이뤄지게 됩니다. 이후 수술한 부위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없어진 조직의 빈자리는 흉터 조직으로 채워지고 회복하게 됩니다.

이때, 어쩔 수 없이 조직의 유착이라든가 운동 범위 저하가 발생되고, 절제한 가슴 측 어깨와 팔의 움직임, 운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합니다. 수술 후 방사선 치료까지 더해지면, 방사선 치료가 암세포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 조직까지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운동 기능은 더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어깨 운동기능은 물론, **전체적인 신체 자세가 더 바르고, 근골격계의 부담 및 무리가 덜하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을 재건하게 되면 절제로 인한 조직의 손실을 보충해줄 수 있고, 피부와 조직의 부족에 따른 구축(근육이나 힘줄이 수축돼 운동이 제한된 상태)을 막아주기 때문에 수술 후 팔과 어깨의 움직임이나 회복이 빠를 수 있습니다. 같은 재활치료를 시행하더라도 재건 수술을 받은 경우가 보다 효율적인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척추측만증 위험 감소

우리 신체는 양쪽에 가슴이 있습니다. 한쪽 가슴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게 될 것이고, 이를 보상하고자 척추에 어쩔 수 없는 무리가 가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특이한 점은 유방이 절제된 쪽의 무게가 가벼워 그쪽의 어깨가 올라가고 가슴이 남아 있는 무거운 쪽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척추가 휘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나타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유방이 남아 있는 쪽에 더 힘을 주면서 어깨까지 치켜 올라가고, 척추측만 또한 가슴이 있는 쪽이 올라가는 식으로 진행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한쪽 유방이 절제된 채 오래 산 사람들 중에는 등과 허리,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반면 유방 재건을 시행한 경우 재건을 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등과 허리의 통증이 적었으며 척추의 휨 정도가 덜해 척추측만증 유병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방 재건을 시행한 환자들의 가슴이 수술하지 않은 정상 가슴과 무게가 비슷하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재건을 한 환자들이 재활치료나 운동을 열심히 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건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어깨 운동기능은 물론, 전체적인 신체 자세가 더 바르고, 근골격계의 부담 및 무리가 덜하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방암 수술 이후에도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가슴을 지키며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병기와 연령, 상황 등을 의료진과 충분히 고려한 후에 개인별 최적의 시기에 유방암 치료 및 유방 재건술을 받는다면, 건강은 물론 높은 심미적 만족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남시민 건강실천 프로젝트 10 ③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습관

3·3·3 치매 예방수칙 실천으로 치매 위험요인은 줄이고 보호요인은 강화하고! 일상 속 작은 노력으로 치매를 예방해요!



3권

勸: 즐길 것

운동

일주일에 3번 이상 걸으세요. 일상에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5층 이하는 계단을 이용하고, 버스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도 좋아요.

식사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식사를 거르지 말고,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싱겁게 드세요.

독서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틈날 때마다 책이나 신문을 읽고, 글쓰기를 하세요.

3금

禁: 참을 것

절주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술은 한 번 마실 때 3잔보다 적게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권하지도 마세요.

금연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흡연은 시작하지 말고,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당장 끊는 것이 좋아요.

뇌손상 예방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운동할 땀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머리를 부딪쳤을 때에는 바로 검사를 받으세요.

3행

行: 챙길 것

건강검진

혈압·혈당·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고혈압·비만·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체크하세요.

소통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가족·친구와 자주 연락해서 만나고, 단체 활동과 여가생활을 하세요.

치매 조기발견

매년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받으세요. 보건소에 가서 치매 조기검진을 받고, 치매 초기증상을 알아두세요.



장서각 산책

영웅, 소환되다! 송상현의 임란 순절

정수환 책임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난세에 영웅이 태어난다고 한다. 그리고 영웅은 만들어진다고도 한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주로 전란에서 나라를 구한 인물을 영웅으로 기억하고 또 소환한다. 오죽하면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는 시쳇말로 영웅을 기다릴까?

조선 최고의 영웅은 이순신이었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 영웅상과 영웅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대표적 인물이 바로 송상현(1551~1592)이다. 송상현은 26세에 문과에 급제하고 사관을 역임한 문관이었다. 임진전쟁 직전 동래부사로 부임했다. 그는 1592년(선조 25) 4월 15일 왜적이 쇄도하자 동래부민을 결집해 3중으로 성을 포위한 적을 상대로 항전하다 전사했다. 그의 죽음 소식은 전쟁 중 급속하게 전파됐다.

부산포가 함락되고 잇달아 동래부사 송상현이 살해되었다. 나머지 군관과 사졸들도 죽은 자를 헤아릴 수 없었다(상주 의병장 곽수지의 『호재진사록』 중에서).

그가 동래부에서 ‘살해됐다’는 언급은 왜군의 세력에 대한 공포를 담고 있다. 당시 선조는 그가 항복했다는 의심을 품고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다행히 경상 감사의 확인 결과 ‘전사’했다는 사실로 정리됐다. 이듬해 상황은 조금 달라져 전쟁 중 영웅이 필요했다.

그러자 그의 죽음에 ‘충의(忠義)’의 가치를 부여하고 포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급기야 송상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왕을 향해 예를 다하며 최후를 맞이한 영웅으로 묘사됐다. 전쟁에서 국왕을 위해 끝까지 절의를 지키는 영웅이 필요했고, 여기에 송상현이 소환된 것이다.



송상현을 추모하는 충렬사가 있는 충북 청주의 강상촌

시간이 흘러 또 다른 위기가 닥쳤다. 청나라의 부상에 이은 두 차례에 걸친 호란은 조선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다. 이런 위기와 치욕을 씻기 위해 이른바 ‘북벌’이라는 구호가 등장했으며, 당시 사람들은 이를 위한 새로운 영웅을 고대했다. 송시열(1607~1689)이 구심점이었던 북벌운동에 송

상현은 영웅으로 다시 소환됐다. 효종의 즉위로 전격 기용된 송시열은 송상현을 청주 유정서원에 향사하고, 뒤에는 이 서원을 국가 공인 사액서원으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송상현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성에 올라 독려하다 성이 함락되면서 감옷 위에 조복을 입고 죽음을 기다렸다. … “군신의 의리는 중하고 부자의 은혜는 가벼워라”라는 시를 아버지께 보냈다. … 왜군도 그의 죽음을 의롭게 여겨 시체를 관에 넣은 뒤 표시를 세웠다…(송시열의 『송자대전』에 수록된 글 중에서).

송시열은 송상현의 죽음을 ‘효’보다 ‘충’을 앞세운 ‘순절’로 규정하고 그의 절의가 왜군들마저 감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송상현이 그러했듯이 북벌이라는 대의에 발 벗고 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인재를 기다렸다. 송상현이 영웅으로 소환되자 이제 그와 인연이 있던 전국 각지에 사당이 건립되고 그를 충절의 영웅으로 추모했다. 17세기 중엽 송상현은 바로 북벌을 위한 영웅의 아이콘이 됐다.

우리는 영웅을 고대한다.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영웅들은 지하에 있지만, 과거가 아닌 오늘의 의미로 추모하고 발견한다면 영웅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현충일, 바로 영웅을 소환하는 날이다.

영화 속 클래식 음악

영화 <작은 아씨들> & 슈만 <나비, 작품번호 2>

올 2월 국내 개봉된 <작은 아씨들>은 미국작가 루이자 메이 올컷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가 담긴 소설 『작은 아씨들』(1868)은 네 자매의 어린 시절, 꿈, 사랑, 결혼, 성공에 대한 이야기로, 영화로 만들어진 건 이번이 일곱 번째다.

배우이기도 한 감독 그레타 거윅의 <작은 아씨들>이 이전 영화들과 다른 점은 여성 감독의 시선이 들어갔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다. 감독의 의도에 따라 조각난 올컷의 원작은 과거와 현재를 번갈아가며 퍼즐처럼 맞춰졌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음악이 큰 몫을 한다.

특히, 셋째 ‘베스가 연주하는 피아노곡들은 7년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네 자매의 이야기를 2시간 15분 길이의 필름에 압축하는 과정에서 긴 대사나 설명 없이도 감독의 의도를 비밀스럽게 전달한다.

영화 중반, 베스가 이웃 로렌스 씨 집 그랜드 피아노에서 연주하는 곡은 로버트 슈만의 <나비, 작품번호 2>의 열 번째 곡 ‘가면을 벗기다’이다.

슈만의 <나비>는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작가 장 폴의 작품 『개구쟁이 시절 Flegeljahre』(1804)의 마지막 장 ‘애벌레의 춤’ 속 이야기를 서주와 12개 소품으로 재현한 피아노곡이다.

영화에 사용된 10번 곡 ‘가면을 벗기다’는 쌍둥이 형제 ‘발트’와 ‘볼트’가 아름다운 폴란드 소녀 ‘비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가면무도회에서 서로의 가면을 바꿔 쓰고 소녀와 춤을 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랑 확인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이야기는 베스의 <나비> 연주 전 장면 속 첫째 ‘메그’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웃집 가정교사를 맘에 두고 있지만 가난이 지긋지긋해 결혼 적령기 남녀의 배우자 물색을 위해 마련된 사교파티에 참석한 ‘메그.’ 친구의 화려한 비단 드레스를 빌려 입고 파티를 즐기지만 결국엔 다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메그’에게 보내는 피아노 선율인 셈이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듯이 베스의 피아노곡 속에 담긴 의미들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는 영화 <작은 아씨들>이다.

유튜브에 ‘비전성남 영화속클래식 작은아씨들’을 입력하면 관련 영상과 음악을 찾을 수 있다.

취재 조윤수 기자 choyoonsoo@gmail.com



피아노를 연주하는 베스 포스터



6~7월 프로그램



프로그램	교육일정	대상	내용
숲놀이학교	화~금요일 10:00~10:50 11:00~11:50	5세 이상 단체	계절에 따른 숲놀이 프로그램, 우천 시 우의(우산) 준비
환경아 놀자!	화요일 11:00~11:50	6~7세 단체	동화와 체험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교육 - 바람이 불어라 : 바람은 왜 불까? 바람이 하는 일, 바람의 이름에 대해 알아보기
자연관찰학교	화요일 15:30~17:00	8~11세	생태 체험 정기 모니터링(1회 신청 시 2개월 정기참여) - 6월 여름의 시작/ 7월 여름의 수확
에코키즈팩토리	수요일 13:00~14:00 15:30~16:30	8세 이상 단체	천연제품 만들기를 통한 환경 안전 프로그램 - 6월 솜베리 핸드워시 만들기/ 7월 손소독제 만들기
에코키즈카페	금요일 15:30~17:00	5~7세 어린이 1명 + 보호자 1명	생태환경 체험활동 - 6월 화랑공원의 여름맞이 / 7월 여름아반가워
신나는 전래놀이	토요일(가족) 일요일(개인) 10:30~12:00	가족 - 5세 이상 가족 개인 - 8~10세	직접 만든 놀이도구로 하는 전래놀이
놀며 배우는 기후학교	토요일 13:00~14:30	8~12세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게임과 놀이로 재미있게 배우는 프로그램 - 6월 멸종위기의 생물들(사라지면 안 되는 얼굴들) - 7월 폐기물(분리배출 비석치기)
하나 되는 기후가족	토요일 15:00~16:30	8세 이상 가족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향상 및 개선을 위한 가족 프로그램 - 6월 지속가능(에코티어링 - 지구를 살리는 불가사의한 물건들) - 7월 이산화탄소(베드코이, 너는 누구니?)
리틀 포레스트	일요일 13:00~14:30	5세 이상 가족	자연놀이를 통한 가족 힐링 프로그램 - 6월 변신의 귀재, 곤충 - 7월 땅 위에 사는 조개
가치 찾는 에코공방	일요일 15:30~17:00	7세 이상 가족	버려지는 물건들의 재활용인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을 알아보고, 가족과 함께 창작물 리폼 및 소품 제작 프로그램 - 6월 재활용품 음악회 - 7월 신문지를 이용한 만들기
판교생활환경 '더나은'	모집일정 5. 12~6. 9 교육일정 6~11월 매주 금 10:00~13:00	환경에 관심 있는 성인 누구나	친환경용품들을 직접 만들고 사용하면서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성인 환경 동아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우리씨앗 나눔행사	6. 27(토) 10:30~12:00 13:30~15:00	5세 이상	씨앗 발아 과정을 알아보고 씨앗(천일홍, 메리골드, 바질) 나눔과 찰흙 씨앗 폭탄 만들기 체험

* 참여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무료신청, 매월 1일(휴일인 경우 전후)부터 다음 달 분 예약 가능
* 신청 시, 홈페이지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꼭 확인 바랍니다.

판교환경생태학습원 031-8016-0100, <http://ppark.seongnam.go.kr>



6월 프로그램

6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교육일정	대상	내용
에코 키즈 A	화~금 오전/오후	유아단체 (5-7세)	6월 숲으로 놀러와
에코 키즈 B		초등단체	
맹산숲속이야기	토.일 오전/오후	유아가족 초등가족	환경부 인증 프로그램 <월별 주제에 따라 진행>
가족목공교실	토.일 오전/오후	유아가족 초등가족	기후변화시대 목재의 사용 이유를 알고 다양한 소품 만들어 보기 2분기 : 손잡이 수납함
새집모니터링단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가족	인공새집 만들기부터 조류관찰, 새집 청소까지 생태원에 집을 짓고 사는 새들에 관심 있는 가족 모니터링단(1~6월 활동)
절기 따라 생태원 가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오후	가족	1차활동 : 1~6월, 2차활동: 7~12월 24절기 중 그달에 해당되는 절기에 맞춰 전통놀이 및 먹거리 활동
열두 달 환경교실	수요일 오전	7세	12개의 환경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하는 실천형 프로그램 6월 : 미세먼지를 막아라
이야기극장	수요일 오전	5~6세	재미난 이야기를 각색한 환경생태 동극 및 오감 체험놀이 2분기 : 공주는 파티에 왜 늦었을까?(자원순환)
병아리환경교실	목요일 11:00	유아단체 (3~4세)	영유아 단체를 위한 오감 체험 중심의 둘러보기 활동
(신규) 살리는 살림	매주 화요일 오전	성인	친환경주방용품, 생활용품 사용으로 지구와 가족, 우리 모두를 살리는 살림을 배워보는 프로그램(3차 시 프로그램)
(특별) 지구가 건강한 밥상	6. 28(일) 14:00	가족	안전한 먹거리로 지구와 가족,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는 프로그램
(특별) 환경의 날	6. 7(일) 14:00	가족	환경의 날을 주제로 체험활동을 통하여 환경인식을 바꾸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프로그램
함께하는 자연	별도협의	장애인	장애인 단체를 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에코틴	별도협의	청소년	환경동아리 및 중고등학생을 위한 환경프로젝트
(전시) 생태원으로 go~go~ (미션 풀고, 선물 받고)	주말	방문객	생태원 전시실, 야외학습장을 둘러보며 계절에 따른 미션을 완료하는 프로그램
(전시) 함께 읽어요	주말	방문객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어보며 환경 감수성을 길러 볼 수 있는 활동
(전시) 맹산공작소	주말	가족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6월 : 지끈으로 만드는 다양한 바구니
자원봉사활동	별도협의	청소년/단체	도슨트, 환경정화, 작은도서관, 모니터링 등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중량 및 학교가 오프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면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 및 가족 예약의 경우 매월 5일 전후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접수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준비물이 있는 경우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맹산환경생태학습원 031-702-1192, <http://mpark.seongnam.go.kr>



바야흐로 청소년 세상

기관	프로그램	일정	장소	대상	내용	접수	문의
재단본부	제5대 성남시 청소년 행복회의 청소년 의원 선거	6. 9(화)~7. 8(수)	온라인	만9세~24세	• 투표방법 : 온라인 전자투표시스템 접속 => 투표하기 클릭(www.snyouth.or.kr/youthcouncil) •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온라인 전자투표 시스템 접속	031-729-9014
	청년 노동인권 프로그램	6. 2(화)~6. 20(토)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만19세~34세	노동 형태별 노동인권 특강	홈페이지 접수 www.snspring.or.kr	070-4908-2090~3
	청년 진로 취·창업 멘토링	6. 1(월)~6. 16(화)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만19세~34세	사회 진입 준비 청년을 위한 멘토링 및 특강	홈페이지 접수 www.snspring.or.kr	070-4908-2090~3
충원 청소년수련관	2020. 자매결연도시 교류사업 참가자 모집	8. 17(월)~8. 22(토) (5박6일)	수련관 온라인	만19세~29세 (40명)	성남시 홍보활동, 흥천 농촌 체험활동, 울릉·독도 탐방활동 등	5. 25(월)~6. 5(금) *홈페이지 참조	031-729-9333
	역사디베이트 『007역사탐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7. 11(토)~7. 25(토) 총3회	수련관 강의실	초등 4~6학년 (15명)	역사를 주제로 한 토론수업으로 주제를 집중화하고 고도의 지적 사고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참가비 : 12,000원)	6. 8(월)~마감시 방문접수	031-729-9354
분당 서현 청소년수련관	15초를 훌쳐라!	6. 13(토)~7. 18(토) 총6회	수련관 및 외부활동지	중·고 청소년 (20명)	화제가 되는 주제(청소년 권익 등)의 공익광고 영상 제작 및 상영회 운영	5. 27(수)~ 온라인 접수·유선문의	031-729-9436
	유열 리틀 텔레비전	6. 13(토)~7. 18(토) 총6회	수련관 및 외부활동지	중·고 청소년 (20명)	크리에이터 직업 교육, 영상 촬영 교육, 크리에이터 체험	5. 27(수)~ 온라인 접수·유선문의	031-729-9436
분당 판교 청소년수련관	청년자립프로젝트 『뽀FUN한 펀딩 프로젝트』	7. 18(토)~12. 12(토)	수련관 및 외부활동지	만19세~34세 (6팀)	아이디어, 창업 아이템, 해보고 싶었던 모든 것을 프로젝트화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실행하는 청년 역량강화 프로젝트(와디즈스쿨 무료교육 수강 시 가산점 혜택 제공)	홈페이지 참조 및 유선문의	031-729-9634
분당 야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운영위원회 모집	연중	수련관 강의실	중·고 청소년, 대학생	제1기 청소년운영위원회 모집 - 네이버폼 작성후 제출(http://naver.me/GNKwTFF9) * 서류 접수 후 개별 연락하여 면접 진행	유선문의	031-729-9831
양지동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W.A.Y』 위원 추가 모집	연중	문화의집 강의실	중·고 청소년, 대학생(4명)	2020년 청소년 운영위원회 『W.A.Y』 추가 모집(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참여, 모니터링) * 자세한 내용은 전화 및 홈페이지 참조	6. 1(토)~ 6. 15(월) 유선문의	031-729-9940
	청년 양성평등 인형극단 『티키타카』 참가 청년 모집	7. 4(토)~10. 24(토)	문화의집 및 관내 초등학교, 지역 아동센터	만19세~24세 (20명)	양성평등 중심의 인형극 프로그램 기획, 초등 청소년 대상 양성평등 인형극 진행 * 합격자 발표: 6월 중 개별 연락	유선문의	031-729-9940
은행동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동아리 『하누리』 신규동아리 모집	연중	문화의집 및 외부활동지	중·고 청소년, 대학생	노래, 댄스, 보컬, 밴드, 학습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모집 (활동 공간 제공, 분야별 전문교육, 봉사시간 지급)	홈페이지 참조 및 유선문의	031-729-9917
성남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위기청소년 복지지원접수	연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만9세~24세	• 생활·건강지원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65% 이내 • 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교복지원)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2% 이내	홈페이지 참조 및 유선문의	031-729-9116
	무료 온라인 심리검사	코로나19 소강시까지	온라인	만9세~24세	무료 온라인 심리검사 및 비대면 해석 서비스 * 홈페이지 공지사항 162번글 참조 (www.snyouth.or.kr)	홈페이지, 이메일 접수 (선착순50명)	031-729-9136
	직업인 특강	5. 4(월)~11. 30(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관내 지역사회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 직업인을 초청하여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직업 정보 제공	유선문의	031-729-9178
	학교밖청소년 바우처 복지카드	연중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카드 발급 시, 월별 5만원 기준, 분기별 최대 15만원 지급 * 신청문의 : 성남시 동 행정복지센터	유선문의	031-729-9171~8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취득 지원을 위한 집단 멘토링 및 1:1 멘토링 운영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 중단 학생 학습지원 학습자모집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학습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전 시실 휴관 및 재개관 계획에 따라 위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 및 유선 문의



2020 행복드림학교 신입생 모집

- 모집과정 한글교실, 초등과정(검정고시), 중학·고등과정(검정고시)
 - 모집인원 각반 15명
 - 수업시간 주 5일, 전 과목 수업
 - 주간반 : 10:00~12:00, 13:00~15:00
 - 야간반 : 19:00~21:00
 - 수업료 무료
 - 장소 중원구 광명로82번길 17-1, 성남종합운동장 씨름장 앞
- 행복드림학교 031-757-3095, 010-9092-3095

자연환경해설사 기본 양성과정 모집

- 교육기간 2020. 5. 30~7. 12 매주 토·일 09:00~18:00
 - 교육비용 80만 원(강사비, 심사비, 현장견학비 등/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미포함)
 - ※ 30만 원 성남시 지원(성남시민, 성남시 소재 직장인 해당 여부 증빙자료 필요)
 - ※ 자세한 사항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홈페이지(http://www.bandior.kr) 참고
- 분당환경시민의모임 031-702-5767, bandior@naver.com

성남문협 제47회 성남사랑창작글짓기 공모전

- 공모기간 2020. 5. 21~6. 20
 - 대상 관내 초·중·고 학생 누구나
 - 주제 성남사랑 또는 자유(시 2편 이상, 수필 1편)
 - 보낼곳 yyeji@hanmail.net(이메일 접수)
 - ※ 원고지에 학년·반·주소·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주최 한국문인협회 성남지부
- 한국문인협회 성남지부 031-758-5090, 010-8528-5090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정부가 평생연금과 거주를 보장하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 가입대상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대상주택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
 -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가능
 -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 1주택자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가능
- 주택연금 월수령액 예시(중신지급방식, 정액형)

취업 고민, 무료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세요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만 18~69세)에게 단계별로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상담 월~금요일 09:00~18:00
 - 위치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5, 성남동메디컬센터 903호 (모란역 1번 출구 도보 2~3분)
- 고용노동부 위탁 취업상담전문기관 (주)코리아잡스원 성남지점 031-721-8360

성남시여성비전센터 정책실험단 모집

- 모집기간 2020. 5. 25~6. 12
 - 모집대상 성남시민 누구나
 - 모집인원 12명 내외
 - 활동내용
 - 성평등정책 수요파악을 위한 시민 인터뷰 및 사례 조사
 - 정책 개발 자체 토론회 및 워크숍 참석
 - 성남형 성평등 정책 발굴 및 제도화 방안 논의 (시민정책실험단으로 선발돼 참여 시 소정의 활동비 지급)
 - 활동기간 2020. 12. 31까지
 - 신청방법 성남시 홈페이지 및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후 우편(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성남수정새마을금고 5층), 이메일(mjkim4338@korea.kr), 팩스(031-756-9808), 방문 접수
 - 발표 2020. 6. 17(수)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게시
- 성남시여성비전센터 031-729-8547

연령	주택가격	(2020. 4월 기준)		
		1억 원 (우대형)	3억 원	6억 원
60세		23만 원	62만 원	124만 원
70세		35만 원	92만 원	184만 원
80세		57만 원	146만 원	293만 원

※ 부부 중 연소자 기준(60세 미만은 홈페이지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설명서를 참고하거나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남부지사 02-3290-6523, 6526, 6527, 6529

2020년 7~9월 시민 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구분	열차번호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접수방법
수정구청	스마트폰 기초 및 활용	성남시민	7. 6~7. 31	월~금 10:00~12:00	6. 15(월) 09:00~ 마감 시까지, 인터넷 선착순 접수 (http://www.sujeong-gu.go.kr), 031-729-5072
	엑셀 2016		7. 6~7. 31	월~금 14:00~16:00	
분당구청	컴퓨터 기초 및 한글	성남시민	7. 6~7. 24	월~금 10:00~12:00	○ 1차 : 6.17(수) 10:00~ - 대상 : 만 5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농업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결혼이민자, 국가유공자, 다자녀(3자녀 이상)막내가 초등학생 이하 ※교육 첫날 증빙서류 지참 시 교육가능 ○ 2차 : 6.18(목) 10:00~ - 대상 : 성남시민 누구나 인터넷 선착순 접수(http://www.bundang-gu.go.kr)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기초 과목은 전화접수 병행 031-729-7078
	엑셀 기초		7. 6~7. 24	월~금 14:00~16:00	
	구글 크롬 인터넷		7. 27~8. 14	월~금 10:00~12:00	
	스마트폰 기초 및 활용		7. 27~8. 14	월~금 14:00~16:00	
	파워포인트 기초		8. 17~9. 4	월~금 10:00~12:00	
	나도 유튜브		8. 17~9. 4	월~금 14:00~16:00	
	스마트폰 기초 및 활용		9. 7~9. 25	월~금 10:00~12:00	
포토샵 기초	9. 7~9. 25	월~금 14:00~16:00			
중원도서관	나도 유튜브! 동영상 제작하기	성남시민 (성인)	7. 6~7. 23	월~목 10:00~12:00	6. 16(화) 10:00~ 6. 18(목) 18:00, 인터넷 선착순 접수 (http://www.sujeong-gu.go.kr), 031-729-5072
	내가 만드는 스마트폰 앱		7. 4~7. 25	토 10:00~12:30	
(사)성남시 장애인 정보화협회	windows10 & 인터넷 & 한글	장애인 및 가족, 성남시민	3개월	월·수·금 09:20~10:30	수시모집 010-5184-6884 (070-7765-6884) ※과목·시간 변경 가능
	컴퓨터 기초 멀티미디어		3개월	월·수·금 10:30~12:00	
	ITQ 한글		3개월	월·수·금 14:20~15:30	
	ITQ 엑셀		3개월	월·수·금 15:30~17:00	
	ITQ 파워포인트		3개월	화·목 10:00~12:00	
포토샵	3개월	화·목 13:00~15:00			

※ 중원구청, 중앙도서관, 수정도서관의 무료교육 일정은 해당 연락처(중원구청 729-6074, 중앙도서관 729-4633, 수정도서관 729-9600)로 문의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염병 소강 시까지 전 교육 임시휴강 중이나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시 빠른 교육 실시를 위해 매일 교육대상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교육진행 확정 여부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진로멘토단 모집

여러분의 재능으로 청소년의 꿈을 성장시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진로 탐색과 합리적인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 사회 분야별 직업인 여러분을 청소년 진로 멘토로 모시고자 합니다.

- 활동기간 2020. 7월 중 위촉 ~ 2020. 12월까지
- 활동분야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직업 특강, 직업 멘토링 등 진로교육 지원
- 지원자격 한국직업사전에 등재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련 전문 유(有)자격자 혹은 경력(최소 1년 이상)이 있는 분
 - ※ 분야 : 4차 산업 관련 직업군, 인 크리에이터, 화학, 법률, 정보통신, 스포츠, 서비스업, 예술, 방송, 창업, IT, 요리, 제과, 패션, 디자인, 의료, 건축, 경찰, 소방 등
- 참가혜택 위촉장 발급, 자원봉사시간 인정, 필요시 활동증명서 발급 등
- 지원방법 지원 신청서 작성(www.snyouth.or.kr 접속 → 자료실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rabbit7902@snyouth.or.kr) 접수

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 031-729-9351, 9355



JUNE · 17일 코로니데이

6월의 공연·전시



2020 동시대미감전 명랑미술관

일시 2020. 5. 22 ~ 7. 26(월요일 휴관)
 장소 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가격 무료
 문의 031-783-8142~5

- 5. 22(금) : 온라인 선공개
 ※ 유튜브에서 성남아트센터를 검색하세요
<https://www.youtube.com/user/snartscenter>

- 6. 2(화) : 전시장 개관
 ※ 전시관람은 2020. 6. 2(화)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사전예약제 운영

1회차 10:00~11:50 관람인원 50명
 2회차 12:00~13:50 관람인원 50명
 3회차 14:00~15:50 관람인원 50명
 4회차 16:00~17:50 관람인원 50명

※ 성남큐브미술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체온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앙상블시어터, 큐브미술관, 상설전시장, 반달갤러리, 갤러리808 등은 성남아트센터에 있습니다.
 성남아트센터 : 031-783-8000

※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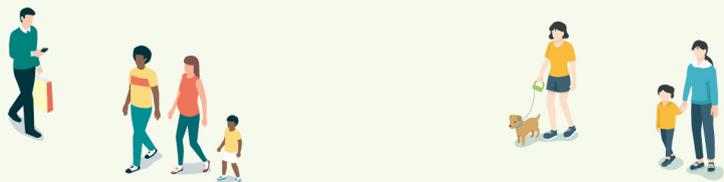
다 같이 돌아, 위례 한 바퀴

위례 주민들을 이어 주는 산책로, 위례 휴먼링

위례신도시를 감싸 안은 듯 만들어진 '휴먼링'은 위례 지역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위례 지역(성남·송파·하남)을 동그란 띠모양으로 에워싼 총 길이 4.4km 휴먼링은 산책로와 자전거길로 나란히 놓여 있다. 걷는 동안 횡단보도나 차량의 방해 없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취재 윤해인 기자 yoonh1107@naver.com,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달뿌리풀



수변역사공원 광장

위례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산책로 휴먼링을 위례 주민들에 섞여 함께 걸어봤다. 밀리토피아호텔 옆 창곡천 변에서 휴먼링 한 바퀴를 시작했다. 휴먼링은 신도시의 시작과 함께 가꿔진 나무가 한낮의 햇빛을 가릴 만큼 자라지는 않았지만 멀리 가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가꿔 놓은 나무와 꽃 사이엔 어디선가 날아와 자리 잡은 들꽃들이 보인다. 원주민과 이주민이 어울려 살며 새로운 도시가 된 위례의 모습 같다. 걷는 내내 사랑살랑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때죽나무꽃을 흔들 어댔다. 메꽃의 나팔소리가 때죽나무꽃 종소리와 어우러졌다. 약한 시간 반 동안 위례를 여행하는 기분, 산책로는 위례의 변하는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4.4km를 걷는 동안 성남에서 시작한 발걸음이 하남, 서울을 돌아 다시 성남으로 돌아오는 것도 휴먼링의 재미다.



때죽나무



메꽃



꿀벌



나란히 놓여 있는 길 위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과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춰 길을 떠난다. 위례가 백제 초기의 도읍지여서일까. 온조, 근초고왕, 무령왕 등 백제왕에 대한 이야기가 산책로 중간중간에 쓰여 있다. 발길 멈춰 지난 시간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겠다. 온조왕 앞에서는 고구려, 신라의 탄생도 함께 떠올려 보고 무령왕 앞에서는 무령왕의 무덤이 있는 충남 공주로 잠깐 이야기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다.



산책로에 쓰인 이야기 중 제일 재미있게 읽은 글은 '남한 산성에서 마장동까지 서울 도보 1일 생활권'이다. 50년 전만 해도 남한산성에서 소를 팔러 서울 마장동까지 걸어 다녔다는 이야기. 새벽 1시에 출발해 6시간을 걷고 소를 팔고 다시 돌아오면 해질녘이었다는 설명. 당시의 자연풍경과 그 길을 걷는 사람과 소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소서루

창곡천에서 바람이 부는 대로 누워 쉬는 달뿌리풀잎 한 장을 떼었다. 징검다리에서 풀잎으로 배를 만들어 띄웠다. 물결 따라 흔들흔들 내려간다. 풀잎배 떠 내려가는 길을 따라가면 탄천으로 이어진다.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남한산성 등산로 초입이다. 천천히 걸으며 나무 한 그루, 풀잎 하나를 들여다보는 여유를 가지면 산책로에서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도 있다. 이른 봄 작은 꽃을 서둘러 피우고 꿀벌에게 꿀을 내어 준 회양목은 벌써 열매를 맺었다. 부엉이 세 마리가 머리를 맞댄 것 같은 열매가 눈에 들어온다. 바람 타고 날아갈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민들레 씨앗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진다.

여기저기 둘러보며 걷다 도착한 수변역사공원에서는 고구려 '횡혈식석실묘'를 볼 수 있었다. 백제왕의 이야기에서 시작한 길이 물길 따라 고구려 이야기까지 흘러왔다. 새로운 도시에서 오래된 이야기를 만나며 자연을 누렸다. 위례 휴먼링에서.



수변역사공원 공연장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백제 건국 기록



함께 만드는 비전성남

essay

마음속의 로또는 1천억 당첨

남상민 분당구 분당동

그간 로또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르던 내가 얼마 전 아내의 꼬드김(?)에 넘어가 머리에 털 나고 처음으로 한 장 구입했다. 1에서 45까지 마음에 드는 숫자를 맘대로 선택해서 기입할 수 있는 공간이 5개씩이나 연속으로 붙어 있는 평범한 종이딱지였다.

대한민국을 대박 열풍으로 뒤집어 놓은 요물이 이렇게 생겼구나! 신기했다. 당첨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쳐다보노라니 배가 절로 불렀다. '아하, 사람들이 바로 요맛에 매주 이 종이딱지를 사들고 콧노래를 부르는구나.'

비록 1억분의 1의 확률이지만, "1등 100억이 당첨되면 정말 행복할까? 그 돈으로 100평짜리 아파트 사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최고급 외제 승용차 사고, 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살겠지?" 과연 그게 전부일까?

우리에게 가족끼리 알콩달콩 모여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충분하다. 집이 필요 이상으로 넓으면, 넓어진 그만큼 가족 간의 정도 멀어지고 쓸렁할 것이다. 좋은 옷 입으면 일시적으로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내면의 빈곤을 가리진 못한다. 먹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가끔 맛있는 것 먹는 정도면 되고.

아이들에게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지 아니? 바로 방글라데시야. 가난이 찢어질 정도의 나라지. 반면 부자나라인 덴마크는 무엇이 세계 제일인지 알아? 바로 자살률이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저녁 내내 우리는 로또를 화제 삼아 웃음꽃을 피웠다. 로또에 당첨될 걱정(?) 없이 그걸 교재 삼아 자식들에게 교훈을 주고 덩달아 가족 간에 웃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니 이것만으로도 본전은 충분히 뽑은 셈이다.

나는 로또 당첨을 원치 않는다. 지금 사는 공간에서 가족끼리 화목하게 웃으며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로또는 사는 순간 가족들과 웃으며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는 도구로써 충분하다. 마음속으로 1천 억 맞으면 되니까.

생활쓰레기 주간 수거 환영합니다

강성주 분당구 서현동

근래 들어서 아침 출근길에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쳐서 잘 몰랐지만 성남시에서 5월부터 생활쓰레기를 야간이 아닌 주간 수거한다는 플래카드를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달 동안의 시범 운영기간을 걸쳐서 7월부터 본격 실시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시민의 입장에선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아주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수거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주택가에서는 차량 엔진소리나 소음으로 인해 수면에 방해됐습니다.

수거노동자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두운 밤과 새벽 시간에 작업이 이뤄지는 거라서 기본적인 시야 확보나 안전 문제에서 취약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간간히 수거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안전사고 소식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밤과 새벽 시간이 아닌 주간 수거를 시행한다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더 여유있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밤시간엔 남들처럼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조금 이른 아침부터 작업을 한다면 수거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또한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성남시에서만 실시하는 건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작업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수거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조금 더 천천히 작업이 이뤄져도 좋으니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photo

바르게 살자 나무

김윤섭 분당구 분당동



분당 중앙공원의 나무 한 그루.
'바르게 살자'는 글귀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예쁘고 바르게 잘 자라는 나무 한 그루.

지금쯤 즐기며 사는 법

도현명 중원구 여수동



홈레스토랑이 유행이다.
성남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겸 주말에 아내와
모란시장 채소가게를 찾았다.
썬드라이 토마토가 익어가며
집안 가득 향긋하다.



사라져가는 이발관, 이곳을 지키는 이발사

수진2동 제일이발관
서현석 이발사의
이야기를 담다

취재 윤해인 기자 yoonh1107@naver.com



이 발 관

제일이발관 헤어스타일 및 염색 드라이 전문



오전 8시, 수정구 수진2동 제일이발관. 서현석(74) 이발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발관의 영업을 알리는 사인볼에 불을 켜는 일이다. ‘제일이발관 문 열었어요. 영업합니다’를 빙글빙글 돌아가는 사인볼을 통해 알린다.

오랜 세월을 품고 있는 위생함의 가위와 면도기, 이발 집기류를 정리한 후 위생검열에 손색없게끔 흰 가운을 갖춰 입고 손님을 기다린다. 요즘 같아선 하루 네댓 명이나 올까. 돈벌이라기보다는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단골들이 핫걸음할까 싶어 손을 놓지 못한다.

“지금은 전문학원이나 학교에서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지만, 옛날엔 안 그랬어요.”

서현석 이발사는 “열여섯 살 때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어느 이발소에서 머리 감기기, 청소, 심부름 등 허드렛일을 하면서 이발 기술을 배웠다. 어린 나이에 결눈으로 배운 이발 기술로 열아홉 살 때 이발사 면허증을 취득했다”고 한다. 당시를 말해주듯 이발관 한쪽

벽면에는 누렇게 색바랜 면허증이 걸려있다.

“이곳 수진2동에 이발관을 연 건 1980년이니까 40년 전입니다. 서울 왕십리에서 10년 넘게 남의 집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집을 사려고 했는데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쌌어요. 성남은 낯선 곳이었지만 누님의 소개로 수진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기와집 한 채를 650만 원에 샀어요. 살다 보니 성남에 정이 들었고, 몇 해 후엔 2천만 원 주고 자그마한 건물을 구입해 제 이발관을 차리게 됐어요. 그게 제일이발관입니다.”

직원 두 명 두고 일할 만큼 호황을 누릴 때도 있었다. 옛날 일이다. 남자라면 무조건 이발관에서 머리를 깎을 때였다.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도 남자라면 엄마가 안고 있는 상태로 어르고 달래가며 머리를 깎아주던 때였다.

“당시 이발 요금은 2천 원 남짓으로 기억된다”며 “요즘 젊은이들은 미용실이나 남성 전문 헤어숍을 이용하고, 이발관은 현대의 미용 문화에 익숙지 않은 60대, 70대

연령층만 찾고 있다”고 말한다.

마침 이발관 문을 열고 손님 한 분이 들어오는데 이발사님의 말처럼 70대 어르신이다. 서울 답십리에서 오셨다는 전문규(78) 어르신은 “제일이발관 근처서 살다가 1년 전에 이사를 갔지만 새로운 미용실이나 이발관 솜씨에 적응이 안 돼 한 달에 한 번꼴로 이곳으로 이발하러 온다. 20년 단골이다”라고 한다.

그런 분이 주고객이다. 분당은 물론 서울 송파·잠실, 경기 광주 등으로 이사 간 후에도 찾아오는 단골손님이 대부분이다.

“자~ 이제 이발 시작하니 사진 잘 찍어요. 커트, 면도, 세발(감기기), 드라이 순으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말경 공중과 방송에서 ‘오래된 이발관, 이발사 외길인생’이란 주제로 소개됐다고 하더니 촬영 당시를 재연하는 듯하다. 사각사각... 가위에 머리카락 잘리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손님은 잠이 든 듯, 이발사는 섬세함을 더한다.



01 제일이발관에서 엿볼 수 있는 오래된 풍경 02 커트와 면도를 마친 서현석 이발사가 손님의 머리를 감기고 있다. 03 커트, 면도, 세발(감기기), 드라이 과정 중 세심하게 면도하는 모습



이 지면은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성남의 모습을 시민과 함께 추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변에 30년 이상 오래된 이색가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착한가게, 장인 등이 있으면 비전성남 편집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729-2076~8